



‘해방의 8.15에서 통일의 8.15로!’



8월14일 밤 11시연세대 노천극장에 1만여명이 집결 한 가운데 8.15제주 통일결의대회가 열렸다.(사진 - 통일뉴스김주영 기자)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현 • 2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 • 박정덕 선생님을 찾아뵙고 이득형 • 5 / 감옥에서 온 편지 이해길/구재보/조정익민 • 8 / 기고
1 • 포항과 광화문으로 달려갈 수 밖에 없는 우리들 정용해 • 10 / 알립니다 • 11 / 기고 2 나진숙 • 12 / 산행기 김백현 • 13 / 회원마당 • 옴시통감시통 기행
문 맹명숙 • 15 / 규탄성명 • 18 / 슬픈일이 있었습니다 • 19 / 시사만평 • 20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2 / 이런일이 있었어요 • 25 / 재정보고 • 33 /
회비를 내주신 분들 • 34

☎ 민기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su.or.kr 이-메일 : yangsimu@hanmail.net

과거 범죄 반성 없는 제국주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

- 극우 반동으로 치닫는 일본의 전쟁 책동을 규탄한다 -

권오현 | 양심수후원회 회장

“야스쿠니신사 문제는 일본, 한국,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문명사와 평화에 반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세계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14일 저녁동경으로 모이자!”

야스쿠니 반대 공동행동 한국위원회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저지하려는 '8월 국제공동 촛불행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다 알다시피 야스쿠니 신사는 수백만의 생명을 죽게 했고 생존조건을 파괴하여 인류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오게 했던 일본 군국주의와 침략전쟁의 1급 전범 위패가 안치된 곳이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해마다 8·15 일본폐망일에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해왔고, 올해에도 그 뜻을 굽히려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차기 총리로 유력한 후보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도 야스쿠니를 참배했음이 최근 보도되고 있다. 일본 지도층의 이 같은 행위는 범죄적인 침략전쟁에 대한 한줌의 반성도 없는 반인륜 행패이고 세계 평화와 인류 양심에 대한 적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곧 8·15 광복절 61 돌을 맞게 된다.

일제의 포악한 식민지 지배로부터 조국 광복과 민족 해방을 이루어낸 경축 명절이지만 언젠가부터 우리 민족에게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사대국화의 부활책동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날이 되었다. 그것은 일본이 독도 침탈야욕을 비롯하여 역사교과서 왜곡, 위에서 말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 평화헌법 개정 시도 등 끊임없이 제국주의 망령 속으로 치닫고 있으며, 특히 최근엔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기다렸다는 듯이 선제공격론 등의 대북 적대정책을 극단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북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다른 선

택의 여지가 없다면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의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10일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 회견에서 한 발언이다. 이전에도 아베는 북의 정권 붕괴론 등 망발을 한 바 있었는데, 이 같은 선제공격론은 미국에 이어 한(조선)반도에서 전쟁도발도 서슴지 않겠다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선제공격론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평화헌법 개정 시도와 함께 대북 적대정책을 넘는 전체 우리 민족에 대한 적대 행위이다. 이미 일본은 대북 제재 수단으로 대북 송금 등을 제재하는 '개정외환법' (2004년 정기국회)과 특정선박입항금지법(2004년 정기국회) 등을 제정했으며, 지난 6월에는 이른바 '북인권법'을 만들었다. 또한 7월 30일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자민당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와 미국은행 간 거래를 중단시킨 근거였던 미국에국자법(Patriot Act)의 일본판인 '대북금융제재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총·칼로 싸우지만 앓을 뿐이지 이미 일본은 대북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셈이며 미국과 함께 대북 압살정책을 해오고 있었다. 이 같은 일련의 대북 적대정책은 우리 민족 전체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에 관한 일로 결코 북·일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 대 일본의 제국주의, 군사페권주의와의 대결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대북 적대 행패는 지난 7월 5일 이북

이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사전통보를 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다음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 일본은 이날 새벽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특정선박입항금지특별법(2004년 제정, 대북제재법 차원에서 입법)에 근거한 ‘이북의 화물여객선 만경봉 92호의 입항을 6개월 금지’, ‘이북당국자의 일본입국불허’와 ‘북-일 전세기운항금지’, ‘일본인 이북방문 자제촉구’, 북에 미사일 관련 물자수출 엄격관리 ‘북으로의 송금차단’ 등 9개 항의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정상적인 국제관계의 규범이나 상식으로 본다면 전쟁선포와 다름없다 할 것이다. 위에서 말했던 아베 신조 관방장관 말고도 아소 다로 일본 외상,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청 장관도 이미 지난 9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핵) 미사일에 실려 일본에 향하고 있다면 피해가 생길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경제 제재와 군사 행동까지 서슴지 않겠다는 망발이었다.

일본은 또한 이른바 북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안보 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고 있었다. 미국의 배후조정을 받으며 만든 결의안 초안은 강제력을 부여해 제재와 무력 사용을 가능케 한 유엔 헌장 7장을 적용하고 있다. 그 요지를 보기로 하자.

●●안보리는 유엔헌장 7장에 따라 북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난한다.

●●북의 탄도 미사일의 개발, 실험, 배치, 확산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moratorium, 유예조치) 공약을 재확인해야 함을 결정(decides)한다.

●●유엔회원국은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자 자재, 상품과 기술이 중개를 포함한 경우를 포함해 북의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되거나 공급활동을 하는 최종수요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결정한다.

●●유엔회원국은 북의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관련되거나 공급활동을 하는 수요자에 대한 물자, 자재, 상품과 기술의 조달, 어떤 재정적 지원이라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결정한다.

●●북이 6자 회담 공동성명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하여 전제조건 없이 즉시 복귀할 것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형태의 핵 계획포기를 위해 핵관련 활동에 관한 작업을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마치 패전국가로부터 항복조인서를 받아내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지극히 감정적이고 악의적이다. 바로 이렇게 실행하려는 것이 일본의 속셈이다. 물론 이 초안은 유엔헌장 7장 원용부분이 삭제되고 북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재확인, 미사일 및 관련 물질 대북수출 금지, 북 미사일 구입 및 기술이전 금지 등에서 일본 초안의 결정(decide)을 요구(demand) 또는 요청(require) 등으로 고쳐졌지만 ‘북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제1695 결의안’은 상임 및 비상 15개 국가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의장성명 정도가 아닌 결의문 채택이란 데서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집요하게 고집을 부렸는지 엿보게 된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끊임없이 핵 선제공격을 말해왔으며 5026, 5027, 5028, 5029, 5030 등 대북 침공작전계획 아래 휴전선 터밀에서 한미연합 전시증원, 독수리 연습(RSO1-FE), 을지 포커스 렌지, 한미합동군사 훈련을 하면서 북 지역을 상정한 상륙작전 훈련을 감행하고 있으며 분명히 이북을 겨냥한 한·미·일 등 8개국 이 이른바 환태평양 훈련(림팩)에 여러 척의 핵 항공모함 군단이 참여하며 수없이 많은 첨단 살인무기를 시험발사하고 있는 그들이 자위적인 차원에서 군사훈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이 같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결의안을 채택한 유엔과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미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외면하고 있었다. 모든 회원국들의 주권 평등원칙에 따라 다른 회원국의 영토 보존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헌장 정신에 따른정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이다. 그러한 불공평의 예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과 무차별적인 살육과괴 행위에 대해 유엔안보리는 무기력하게 미국 눈치만 보고 있지 않은가. 미국과 일본은 또한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 4일 뒤 인도가 핵탄두 탐제가 가능

한 최대 사정거리 4,000km의 '아그라 III' 미사일을 발사한 일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으며 대만이 '송평-3' 미사일 발사를 성공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못 들은 척 하고 있었다. 더구나 북의 미사일 발사는 끊임 없는 미·일의 대북 선제공격 위협 등에 따른 자위적 군사훈련이며 미국의 일방적 무시와 압살 정책에 대한 북·미 직접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이라고 미국의 언론조차 논평하고 있었지 않았던가. 그 논평은 북 미사일 발사 훈련이 국제법에 따른 제재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일본의 대북 적대정책은 철저하게 미국의 배후조정과 연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본의 조선 침공을 목격한 '카스라-태프트 밀약' 이후 한때 제국주의 전쟁의 적대 관계도 있었지만 Corea 전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미국은 1951년 대일강화 조약, 미·일 안보 조약 등으로 미국의 일본 '점령'을 마쳤으며 동·서 냉전이 격화되면서 1960년 미군의 일본 주둔과 양국간 방위협력 근거가 된 미·일 방위조약 그리고 동맹관계로 발전된 미·일 안보선언(1986)과 미·일 방위 협력 지침(신가이드 라인-1997) 등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 패권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신가이드 라인의 실효성을 법률적으로 받침하기 위한 관련법으로 특히 '주변 사태법'이 있다. 바로 Corea 반도 유사사태를 상정한 것으로 Corea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동적으로 미군의 전쟁수행에 국가총동원 체제로 협력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또한 이남에 의한 통일을 전제로 북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에 대한 미군의 선제공격을 내용으로 한 '작전계획 5027'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었다. 가장 최근의 일로 미·일 양국은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외무·국방 장관이 함께 '한·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위원회)에서 주일 미군기지 개편안 등 통합작전 지휘체계를 마련했다. 바로 미·일 군사 동맹의 강화조치였다. 그리고 '신 미·일 안보공동선언'에서는 중국과 이북의 존재를 '아시아 태평양지역 안보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했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 뒤에도 미·일은 다투어 대북 추

가제재를 강조했다. 1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중요 8국(C8) 정상회의에 참석한 부시와 고이즈미는 비확산에 대한 별도성명에서 북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북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의 채택을 주도했다. 또한 중요 8국이 북의 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협력을 막는 감시활동을 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라이스 국무장관과 아베 신조는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한 추가 제재를 말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은 18일 핵 추진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호를 부산항에 입항시키는 대북 압박을 가했고, 스텐턴 레비 미 재무차관은 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돌며 북에 대한 추가금융제재를 선언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이에 따라 감시대상 기업이나 개인의 리스트를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일본 금융기관의 관련계좌와 자산을 조사중이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부시와 고이즈미는 7월 2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의 일체화', '신세기 동맹', '주일미군 재편에서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 '핵과 미사일 등 대북 문제 공동대응', '미군·자위대 일체화' 등을 선언했다. 그리고 7월 25일에는 미상원이 북에 대량 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물자, 기술을 이전하거나 판매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미국이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 비확산법안(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을 통과시켰다. 유엔안보리 결의 이후 첫 번째 대북 제재 입법이었다.

미·일의 이 같은 대북 제재와 압살정책이 이어지는 한,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땅에서의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우리 민족 모두의 절멸만이 있을 뿐이다. 전쟁을 막아야 한다. 미·일을 설득해서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케 하는 것은 굶주린 늑대에게 금식을 권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물리적 억제력이요 철통같은 민족 공조이다. 민족 공조에는 관·민이 따로 있을 수 없고 보수와 진보까지도 따로 해선 안 된다.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과 자위를 위한 억제력만이 전쟁을 막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조국통일, 내 일생에서 가장 큰 바람

- 박정덕 선생님을 찾아뵙고 -

이득형 | 운영위원

비정규노동자
절대리나!!



온 집안이 구국운동의 한마당

나는 1930년 1월 25일(음력)에 태어났다. 전라북도 곡성군 죽곡면 당돌리가 내고향이다. 이 땅에 아름답지 않은 산천이 없겠지만 내 고향도 다른 곳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마을 앞으로 내가 흐르고 뒤로 산등성이가 둘러선 배산임수의 땅은 더위와 추위를 적절히 막아주고 농사에 도움을 주는 형세였다. 나는 그런 아름다운 산하에서 나고 자랐다.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산하와는 달리 일제의 식민지로서 1930년대 우리 나라 농가의 경제 사정과 부채 문제는 매우 심각했으며 토착 농민의 상당수가 궁핍과 고리 대금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는 10대가 되어서야 겨우 나라의 현실을 조금 알았지만 어른들은 일제의 수탈에 매우 어렵게 살았고 자식들은 부모의 고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 시기는 식민지 민족으로서 겪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지식인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시기이기도 했다.

내 집안은 양반 가문이었어서 아버지는 한학을 했고 집안 일은 머슴들이 했다. 동네에서는 우리 집을 '박부자

집'이라 불렀다. 나는 그런 집안에서 1남 3녀의 막내딸로 태어나 부모와 동기, 동네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아무 어려움 없이 자랐다. 사람들은 나를 '똥똥이'라 불렀다.

우리 집에는 동네 사람들이 자주 쌀을 팔러 왔다. 나는 소학교 어느 때 그런 동네 사람들을 보고 막연히 "왜 그들은 우리와 처지가 다를까?"라고 스스로 의문을 갖기도 했다. 또 소학교 3학년께 동네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친구네가 시커먼 콩보리밥을 먹는것을 보았다. 나는 그때까지 쌀밥만 먹고 자라 보리밥을 잘 몰랐다. 친구네의 콩보리밥을 보며 예전에 어른들 얘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났다. "애들은 콩보리밥을 먹으면 일찍 죽는단다." 나는 친구와 친구 동생이 죽을 줄만 알고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니, 친구네는 콩보리밥을 먹는데 이제 그들은 죽어야 해?"라고, 그렇지 않다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선뜻 이해하지 못했으며, 내가 먹는 흰 쌀밥과 친구가 먹는 시커먼 콩보리밥의 차이를 알지도 못했다. 나는 그때부터 조금씩 사람 사이의 차별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다.

나는 죽곡면 석곡심상소학교(후에 '석곡심상국민학교'로 개명되었다)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는 못했다.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도 사회의 차별을 뛰어넘지는 못했던 듯하다. 나는 억울했지만 제 생각대로 할 만큼 남다르지는 못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학을 하는 양반이었는데도 온전히 봉건적인 인물도 아니었다. 아버지는 일제 식민지 나라의 지식인으로서 드러내지 않은 분노와 절망 따위를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독립군에게 자금도 대고 만인들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데도 전혀 말리지 않았다. 더구나 내가 결혼한 남자도 드러난

사회주의자인데 아버지가 혼인을 선뜻 승낙한 것을 보면 아버지는 남다른 데가 있었다. 더욱 놀라운 이는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당신 아들이나 내 남편이 입산해서 빨치산이 되었을 때 그들의 전령 노릇을 태연하고도 대범하게 했다. 전령 쪽지를 아주 가늘게 말아서 웃고름, 머리의 쪽, 옷깃, 버선 등 몸 여기저기 숨길 만한 곳에 잘 감추었고 잘 전달하곤 했다. 나도 후에 그런 어머니를 본받아 전령이 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온 집안이 구국운동에 큰일을 한 셈이었다. 내 언니들은 일찍이 전북 김제와 전남 승주로 시집을 갔다.

오빠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당국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 입산했다. 오빠는 연희전문을 다니다 퇴학을 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운동을 했다. 오빠는 전쟁 발발 후 잡혀가 심하게 고문을 당해 그 후유증으로 늑막염이 크게 도져 결국 30세 무렵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영특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는데 참으로 아깝고 통탄할 일이었다. 살아서 제 역할을 했다면 세상에서 한 몫을 했을 인물이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꾼 혼인

나는 1948년 열여덟 살에 이웃 마을 총각과 혼인했다. 남편 이름은 이병관이다. 혼인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했다. 혼인은 달콤한 맛도 알싸한 맛도 아니었다. 사실 망국 시민으로서 개인의 행복만 탐할 수는 없었다.

혼인했을 때 남편의 집안은 한마디로 썩대밭이었다. 남편과 시동생이 그 이전부터 사회주의 운동을 해오던 터여서 당국의 탄압으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 있었다. 시동생(이동수)은 일본에 유학까지 다녀온 이였고 남편은 일찍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든 지식인이었다. 두 형제는 사회주의 운동을 했고, 당국의 탄압으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난 것이었다. 나는 혼인 후에 시택에 가지 않고 친정에서 살았다. 시택이라고 마땅히 집이 없었고 남편은 결혼 전이나 후에도 운동 때문에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어서 시택에 가지 않았다.

나는 혼인 후부터 당국에서 감시하는 요시찰 인물이 되었다. 남편 때문에 집안에 경찰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물론 혼인 이전에도 오빠때문에 경찰이 찾아오기는 했지만 남편은 오빠보다 더욱 중요한 수배자였다. 경찰은

아무때나 찾아와 남편을 내놓으라며 협박했다. 심지어는 아무 죄목도 없이 나를 끌고 가 협박과 고문을 하기도 했다. 경찰에 잡혀가면 아버지가 돈을 마련해 나를 빼내곤 했다.

1949년에 나는 딸을 낳았다. 귀엽고 예쁜 아이였는데 시절을 잘못 만나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특히 부모의 사랑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해 추위가 가시지 않은 초봄에 나는 경찰의 협박과 탄압을 견딜 수 없어 갓난 딸을 돌려 업고 남편이 있는 산으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석 달쯤 있었는데 아이가 아직 어려 산에서는 더는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아이에게도 큰 고생이었지만 산 사람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었다. 하산을 하자마자 경찰이 들이닥쳐 석 달 동안의 행적을 캐물었다. 전남 승주에 사는 언니 집에 가 있었다고 돌려댔지만 금세 들통이 났다.

딸을 어머니에 맡기고 나는 경찰서로 끌려가 심하게 문초를 받았다. 경찰은 남편을 내놓으라고 끈질기게 옥박질렀다. 처음엔 몽둥이질과 손찌검으로 시작해서 온 몸을 발가벗기고 두 팔을 천장에 매단 다음 몸을 가리지 않고 몽둥이로 두들겨 팼다.

다음 차례는 끔찍했다. 의자에 앉히고 두 팔을 의자 등받이 뒤로 묶은 다음 고개를 뒤로 젖혀 얼굴에 수건을 덮고 주전자로 물을 부었다. 나는 몇 번이나 숨을 놓아버렸다. 나는 잘 견뎠다.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니었다. 전기고문은 더욱 처참했다. 두 젓꼭지에 각각 전선을 잇고 전기를 흘렸다. 가눌 수 없는 떨림과 온살이 저며지는 아픔과 혹한의 추위와 혹서의 더위가 마구 뒤섞여 흡혈인지 두들김인지 난자인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온갖 고통들이 엉켜들었다. 죽는다는 절망감이 수없이 스쳐갔다. 고통을 벗어나 편안해지고 싶은 유혹도 밀려들었지만 어떻게 견뎠는지는 생각나지 않는다. 아버지가 큰돈을 가져와 일주일만에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경찰은 나를 가만 두지 않았다. 아무 때나 집으로 찾아와 협박하는 것은 더욱 잦아졌다. 1949년 가을께에 나는 경찰을 견디다 못해 둘째 언니가 사는 김제로 피신했다. 딸은 친정 어머니에게 맡겼다. 언니네 집에서 반년 이상을 숨어 지냈다.

1950년 6월 25일, 김제에 피신해 있다가 전쟁이 났

음을 알았다. 오빠도 역시 피신해 있었는데 연락이 닿아 함께 김제에서 곡성까지 3일을 산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 보니 남편이 돌아와 있었다. 남편은 인민위원회 죽곡면 당위원장이었다. 시동생은 1950년 봄에 경찰에 체포되어 전쟁 발발 후에 총살당했다. 여전히 바쁜 남편과 오랜만에 집에서 딸을 데리고 몇 달을 살았다. 그때가 내 결혼 생활에서 가장 단란했던 시절이다.

역사에 동참한다는 자긍심

1950년 가을께에 남편과 함께 입산했다. 전세가 불리해져 고향 인근의 죽곡면 통명산으로 갔다. 또 다시 아이를 친정 어머니에게 맡겼다. 아이에게는 참으로 미안했다. 훗날 시대에 복무해야 했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딸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새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통명산에서 남편이나 동지들과 1951년 봄까지 생활했다.

1951년 봄에 나는 상부의 지시로 전남 화순군 백아산에 있는 도당학교에 갔다. 그곳에서 2주간 학습을 했는데 한층 세상을 많이 알게 되었다. 학습을 끝내고 오곡면 여맹위원장이 되었다. 오곡면 말골에 입산해서 활동했다. 남편과는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다시 떨어졌다. 활동은 주로 비전투원으로서 했다. 상부의 지령이 있으면 완수하고 부락에서 옷을 짓거나 식량을 보급하는 투쟁 등을 했다. 삶이 그토록 재미나고 흥이나는 시절이 없었던 듯하다. 완전히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았다.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꿈에 젖어 있었다. 그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투쟁해서 새 세상을 이룬다는 생각은 나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키웠고 보람과 자랑스러움도 생겼다. 동지들의 따뜻한 인간애는 무엇보다도 좋았다. 이전에는 사람간에 그런 우애를 보지 못했다. 가족간에야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웃간에, 혹은 남모르는 사람 사이에 그렇게 나누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시작됨을 느꼈다. 좋은 세상을 바랐다. 또한 그런 세상이 완성되어 가는 길목에서 커다란 역사에 동참한다는 뿌듯함은 자랑하고 싶었다. 또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얻은 게 무엇보다 큰 성과였다.

전세는 우리에게 매우 불리해졌다. 남녘의 경찰이나

군대는 빨치산이나 관련자들을 소탕한다고 눈에 쌍심지를 쏴고 있었다. 그러니 생필품 보급이 크게 떨어지는 일이 잦았다. 그동안 생필품을 보급하던 마을들도 경찰의 감시와 탄압이 더욱 심해지면서 몸을 사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생필품 보급투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1952년 2월 10일째였다. 나는 말골에서 봉두산으로 거점을 옮겨 활동하다 보급투쟁을 하러 구례 문척에 가는 길에 꼬리를 잡히고 말았다. 추격대를 피해 함께 가던 동지들과 앞만 보고 뛰었다. 몇몇 동지들과는 헤어졌다. 어느 능선에서 경찰의 총알 세례를 받았다. 빗발치는 총알을 피하려고 능선 아래 계곡으로 몸을 날렸다. 산골에 아직 봄은 일러 계곡에는 얼음과 남은 눈들이 쌓여 있었다. 미끄러져 내려가며 계곡에 있는 얼음을 겨냥했다. 얼음 뒤로 들어가면 총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총알보다 빠르게 날아 얼음에 닿은 순간 오른쪽 다리가 얼음에 심하게 부딪치는 듯했다. 아니 다리가 부딪치는 게 아니라 계곡의 집채만한 얼음덩이가 날아와 다리를 때리는 듯했다. 나는 총알을 맞은 줄 알았다. 엄청난 고통을 느꼈지만 재빨리 얼음 뒤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총소리가 잦아들자 다리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일어서려고 다리에 힘을 주자 무릎과 발목의 가운데개가 쑥 꺾이며 몸이 오른쪽으로 발랑 넘어갔다.

살피니다리가 완전히 끊어져 겨우 살가죽만 붙어서 달랑거렸다. 그때에야 제대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함께 추격을 피하던 의무 동지가 와서 다리에 부목을 대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봉대로 감았다. 그는 나를 부축해서 근처에 있는 바위 동굴로 데려갔다. ❀

(다음호에 계속...)

편집자주

이 글은 박정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재구성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단번에 글 몇 줄로 복원해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산 삶에서 감동을 느끼는 데에는 생애 전체가 꼭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심수후원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해길 | 광주교2166

권오현 회장님께

안녕하세요 어느덧 반년이란 세월도 훌쩍 지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건강은 하신지요. 하시는 일은 잘 되시는지요.

후원회소식지는 계속 보다가 06.5.16 통권175호까지 보다가 구할 수가 없어서 열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있었어요’ 코너에서 세상에 돌아가 일들과 어디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하오니 176,177호와 함께 계속 좀 보내주세요.

이곳에서는 후원금을 못보내니 2007년 4월2일 출소하여 민가형 양심수후원회에 동참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면상 검열문제로 인해 기재할 수 없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회원관리에 전념하시고 안녕히계세요.

7.11 광주에서 파랑새 이해길 드림.

양심수후원회 동지들께

구재보 | 대전교1959

징역살이를 하면서 양심수라는 이유로 참 많은 것을 받기만 했습니다.

동지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옥살이가 이렇게까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열심히 투쟁하고 치열하게 살겠습니다.고맙습니다.

2006년 7월12일

대전교도소에서 구재보 드림

※구재보동지께서 편지에 네잎클로버를 붙여서 보내주셨네요

저희야말로 드리는 것 그 이상을 감옥에서 고생하시는 동지들로부터 받는 것 같습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님들에게

조정의민 | 포항교223

안녕하세요

제헌절 민 연휴지만 중부지방은 비가 많이 와서 난리라는데 다들 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비가 후덥지근했던 장마의 막바지인 듯 하고 곧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텐데 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포항교도소에 수감중인 조정의민이라고 합니다.

매번 보내주시는 영치금, 소식지 등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한번 편지로라도 인사를 드린다는 것이 무에 그리 바쁘다고 치일피일 미루다가 출소일이다 되어서야 이렇게 편지를 띄우네요

죄송스런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5월에 구속되어 1년2개월여가 지난 지금 다음달 8월14일 가석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날 오전 10시에 출소할 듯 하네요.

처음 병역거부를 고민하고 구속을 결심하고 구속 되었던 그때, 그리고 지금 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가만히 돌이켜 봅니다. 정리되지 않는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하지만 주변의 많은 고마운 사람들의 지지와 후원으로 제가 버틸 수 있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 같아요 구속되고 민가협에서 이것저것 받으면서 너무 당연하게만 여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반성도 해보구요.

자신의 양심을 신념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개개인이 가졌을 고통, 아픔 몸에 그대로 새겨져있는 그 상처들을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아픔이 존재하지 않도록 노력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보네요.

구속초기 수감 중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는 다짐 돌이켜보면

그저말 뿐이었던 것 같아서 부끄러운데 남은 기간이라도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출소이후에 더 고민하고 실천 해야겠구요.

본격적으로 더워질 날씨 권오현 회장님 외 회원분들 건강조심하시고 바쁘신 중 접견까지 오신 대구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출소 후 뜻깊은 8.15를 맞이할 그 날을 생각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2006년 7월16일 포항에서 조정의민

“이젠 정말 참여정부의 폭력이 두렵다”

- 포항과 광화문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

정용해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정책기획단장



‘고하중근 열사가 쓰러졌던 그 현장에서 목격된 또 다른 경찰폭력의 모습’

우리는 지난 겨울 두 명의 열사를 보내야 했다. 그것도 경찰의 폭력으로 선량한 농민들이 목숨을 빼앗겨야 했다. 고 전용철, 고 홍덕표 열사를 보내며 흘린 눈물이 아직 채 마르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또 경찰의 폭력 앞에 처참하게 쓰러진 노동열사의 주검 앞에서 있다.

우리는 지난 겨울 소위 참여정부의 수장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고개 숙이며 사과하며 내 뱉었던 말들을 기억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다. 정도를 넘어 행사되거나 남용되면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치명적이다.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을 뱉어 낸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또 한명의 노동자가 경찰의 폭력에 의하여 맞아 죽은 것이다.

경찰의 반응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어라 사과 했

었는지, 아니 무어라 약속 했었던지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조차도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겨울과 똑 같은 방법으로, 똑 같은 단어로 ‘직접 폭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강력한 진압과 정에서 무엇인가에 크게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는 것이 모든 정황으로 밝혀져 있음에도 직접적으로 때려죽이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으므로 자신들과 관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태도가 더욱 더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을 아직도 정부와 경찰은 모르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수많은 교훈을 얻는다. 지난 군사독재시절 광주에서 수많은 양민을 학살한 바 있는 전두환 살인마 정권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 엄폐하면서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희대의 사기극을 탄생시켰다. 이제 노무현 정권은 ‘목격자만 없다면 경찰은 아무나 때려죽여도 된다.’라는 또 하나의 관행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듯 하다. 공권력으로 시민을 농민을 노동자를 때려죽이는 정권, 이 정권이 과연 전두환 살인마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노무현대통령은 스스로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소위 참여정부는 국민을 3명이나 살해한 살인마 정권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리고 남은 임기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향하여 죽음의 폭력을 휘두를지 모른다. 이제는 우리는 부당한 정권의 정책이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하여 거리에 나서려면 모두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지경으로까지 내달리고 있다. 아니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는 살아도 거의 죽음 같은 삶이거나 죽음을 각오한 저항만이 남겨진 것이 아닐까하는 아찔한 생각까지 밀려오게 하는

것이 노무현정권이 벌이고 있는 지금의 행태이다.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단결된 투쟁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포항으로, 광화문으로 우리는 달려 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경찰의 폭력으로 맞아 죽는 무고한 시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고 하중근 동지의 명복을 빈다. 폭력 없는 하늘에서 고이 잠드소서...☯

편집자주

이 글은 정용해 동지께서 '민중의 소리' 칼럼에 2006년 8월 4일자로 기고하신 글입니다.



알립니다

북녘 큰물 피해복구 돕기와 콩우유보내기운동에 양심수후원회가 함께합니다.

이번여름 장마와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북녘의 동포들이 큰 피해를 입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형제애와 동포애로 작은 힘이나마 함께 모아 북녘동포들이 힘겨워 하고있는

수마가 할퀴고 간 상흔을 보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심수후원회의 특별사업으로 채택되어 전개 중인 '북녘어린이콩우유보내기운동'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핏줄 한민족인 남과 북은 서로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양심수후원회는 북녘 수해지원과 어린이들을 돕는 운동에 지속적으로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 후원계좌 : 제일은행 159-10-001411

■ 예금주 :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8월 산행 - 북한산에 오릅니다.

한여름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8월입니다.

이번 8월에도 양심수후원회의 산행이 있을 예정입니다.

해방61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이땅에는 완전한 자주와 평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8.15의 달 8월을 맞아 많은 회원이 모여 자주와 통일을 향한 의지를 다져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중에서의 맛있는 점심식사와 시원한 막걸리가 있는 그리고 알찬 시사강연이 진행되는

8월산행에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8월 20일(일) 오전 10시

■ 모이는장소 : 우이동 버스종점 그린파크 앞

■ 가는 곳 : 북한산 일대

■ 준비물 : 간단한 도시락과 회비 3,000원

폭력적인 수배에 당당히 맞서 자주, 민주, 통일의 새 날을 안아오겠습니다.

나진숙 | 정치수배 피해자

민기협 양심수후원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먼저 글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속에서도 불철주야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정치수배해제! 를 외치며 투쟁하시는 선생님들과 어머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정치수배자입니다.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7년 동안 수배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2000년 건국대 총여학생회장(8기 한총련 대의원), 2002년 건국대 총학생회장, 동총련 의장(10기 한총련 대의원)을 역임하며 2000년부터 지금까지 햇수로 7년째 수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생활의 고통과 부당함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7년동안 학교 학생회실에서 자고 먹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학교 밖으로 한발자국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겨울이면 찬물로 머리 감고 목욕탕은 꿈도 못꾸는 처지였습니다. 특히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때면 집에 갈 수 없는 저는 남몰래 학생회실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어머니 기일이 음력 8월 15일 추석인데도, 수배생활로 어머니 제사상에 술 한 잔 부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집도 이사해서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집에 무슨 일이 생겨도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소식만 들으며 괴로워할 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었습니다. 신념과 양심을 지키는 일이 부모와 가족에게는 경찰들의 온갖 협박과 시달림이었습니다. 저 혼자만 고통스러우면 천만다행일텐데. 경찰들은 저의 가족을 가만 두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찾아와서 “진숙이 내나라, 진숙이 어디있냐, 자수하면 처벌 덜 받게 해주겠다.”며 으름장 놓기 예사이고 심지어는 아버지 직장까지 찾아가고, 친척집, 언니 직장까지 여러 번 찾아가서 행패를 부린 걸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수배는 수배 당사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똑같은 시술을 들썩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청춘을 고스란히 수배생활로 보냈고, 아버지에게는 늘어나는 건 술과 현머리, 까맣게 탄 속입니다.

저는 큰 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동안 못해드렸던 효도해 드리는 것, 이게 큰 소원입니다. 이제 혼자 차려서 드시는 식사가 아니라 제가 직접 차린 정성이 담긴 따뜻한 밥 한끼 같이 먹고, 주말이면 가까운 산에 등산 같이 가서 그동안 못 나눈 얘기 실컷 해보는 것입니다. 저의 작지만 이룰 수 없는 큰 소원이 수배라는 장벽으로 가로막혔었습니다. 아버지와 딸과의 정을 끊고,

20대가 다 지나도록 사회생활은 꿈도 못꾸게 만들었던 국가보안법, 한총련 정치수배! 저는 이 시술을 당당히 끊고자 합니다.

제 나이 29살입니다. 친구들은 직장 다니다, 결혼한다, 아기 낳는다 하면서 한참 바쁜 나이입니다. 물론 저에게는 꿈도 못 꾸볼 일이지요. 하지만 전 결심했습니다. “수배자라고 사랑도 못하고 결혼도 못한다는 게 말이되느냐! 지금껏 숨죽이고 수배생활을 한 것도 억울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수는 없다!” 고 말합니다.

당당히 사회진출을 하고 결혼도 하려고 합니다.

지금 10월 29일 결혼날짜를 잡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 수배라는 칼날로 결혼식을 방해한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으로, 한총련 이적규정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단지 학생회장이었다는 이유로 내려진 정치수배로 저의 결혼식을 가로막는다는 건 인륜을 저버리는 것이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수배 7년 고통의 세월도 모자라 사회진출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진출두를 해서 조사만 받으면 된다, 잘 해결해 주겠다” 고 합니다. 신념과 양심을 지켜온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조사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죄없는 사람들을 잡아두고 광폭한 탄압을 저지른 공안당국이 자기 죄를 빌어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저는 저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수배해제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흐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당당히 집에 가고, 결혼도 준비하고, 수배생활의 고통도 알리고, 수배자가 결혼한다는 사회 여론도 만들 생각입니다. 저의 결심을 지지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인륜적, 반도덕적, 반민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버리고 자주민주통일된 세상을 빨리 만들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소식 다시 전할 때까지 몸 건강히 계십시오.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편집자주

나진숙님은 올해 29세로 건국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재학중 2000년 총여학생회장(8기 한총련 대의원), 2002년 총학생회장, 동총련 의장(10기 한총련 대의원)을 역임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7년째 수배중입니다.

양심수후원회원들과 함께오른 도봉산

김백현 | 회원

2006년 7월 30일 일요일 오전 흐린 날씨 속에 이번 달 산행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에서 산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내내 비가 왔기 때문에 오늘 역시 비가 와서 산행이 취소될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은 다행스럽게 날은 흐리지만 비가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가게 된 산은 도봉산입니다.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인 도봉산은 맑은 계곡과 접근이 쉬운 위치 탓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도봉산역에 도착해 나오니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역에서 도봉산 입구까지 잠깐 걸었음에도 등이 온통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입구 앞에는 벌써 권오현 회장님을 비롯한 몇몇 분께서 벌써 기다리고 계시고 그 이후에도 여러 선생님께서 속속 도착하셨습니다.

오늘의 산행목표는 도봉산의 '우이암'입니다. 생긴 모습이 소의 귀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는 우이암은 특이한 모습 탓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아직 도착하지 못한 몇몇 분을 더 기다린 후 11시경 도봉산 산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 좋지 못한 날씨와 더위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도봉산은 사람들이 많이 붐빈다. 봄비는 사람만큼이나 일주일 내내 내린 비 탓에 바위 나무 모두 촉촉하게 물기를 머금

고 있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걷게 됩니다.

덥지만 옆에 흐르는 계곡은 보기에든 시원해 보여 몸은 지치지만 마음을 안정되게 합니다. 계곡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며 같이 뛰어놀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습도가 높고 더운 한증막 같은 날씨라 벌써부터 등에 땀으로 범벅이 되고 중간 휴식이 평소보다 많습니다. 중간에 막걸리시간도 한 번 가지고, 목이 마르는 참에 오이를 한입 깨무니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82,83세 되시는 김선분, 변의숙 선생님 두 분께서는 너무 잘 오르셔서 지나가던 사람이 연세를 물어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김영승 선생님께서 마침 캠코더를 가지고 오셔서 촬영을 하시는 덕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도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결국 우이암 위까지는 오르지 못하고 중간 봉우리에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각자 가져오신 도시락을 풀고 맛있는 점심식사를 시작합니다. 막걸리를 막 몇 잔 하는 중에 마침 제 아버지께서 전에 권오현 의장님께서 출판 기념회를 하셨을 때 축하연에 쓰였던 왔던 술을 가지고 오셔서 인기가 많습니다. 덕분에 분위기가 올라 서로 더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오늘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님께서 오시기로 되어 있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오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탓에 금번 산행은 대체적으로 가벼운 이야기가 오갔었고 권오현 회장님의 최근 정세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탁무권 선생님 등 몇 분이 뒤이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위인 분들께서 길게 소개를 하시는데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저로서는 매우 형식적인 소개밖에 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나이 드신 몇몇 분을 제외하고 한 시간가량 우이암 방향으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날씨가 흐려 멀리까진 보이지 않았지만 우이암은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봉우리에 솟아난 큰 바위인데 이름을 의식해서 그런지 제가 보기엔 그다지 소의 귀로 보이진 않습니다.

우이암 근처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후 다시 원래 식사를 한 자리에 모여 하산을 하였습니다. 오르는 것은 그렇게 힘들었지만 막상 내려가는 것은 도봉산 길도 잘 닦여 있어 금방입니다. 날씨만 덥지 않았다면 우이암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었지만 저만 혼자 산에 오르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있는 산행이었습니다.

내려오고 나서는 근처 가게에서 뒤풀이를 가졌습니다. 계곡근처에 있는 가게여서 그런지 물소리를 들으며 막걸리와 부침개를 먹으니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뒤풀이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가졌는데 그 중 인상 깊은 것은 다른 자리에선 마음 놓고 말을 하기 힘들게 여기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주위 사람이 틀린 말을 해도 알려주고 싶은데 현실상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국보법이 철폐되고 나아가 통일이 되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북녘의 동포들을 만나 '전엔 그런때가 있었다.'는 추억 정도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생각하는 바램입니다.

비록 비온 후에 더운 날씨였지만 일주일 내내 오던 비가 이날 마침 그친 것은 서로 같이 산을 오르고 같이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하면서 짧은 글을 마칩니다.☺



알립니다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영화 상영회

- 일 시 : 9월 12일 (화) 오후 6시
 - 장 소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광화문우체국 6층)
 - 작 품 명 : 민족과 운명 제25부(노동계급편 제2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995년 제작, 100분 상영)
 - 줄 거 리 : 강선 직강소에서 쇠물작업을 하는 강태관 일기와 그 지붕아래 모이는 귀환병등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이다.
- ※ 문의: 한천옥(016-235-5631) 관림료는 무료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역사와 자연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

- 음식통감시통 제46차 정기 기행을 다녀와서 -

맹명숙 | 회원

현재 다니고 있는 광야교회 안병길 목사님을 통해 민가협양심수후원회의 여행모임인 음식통감시통을 알게 된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인데 7월 22일부터 23일에 걸친 기행에 따라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토요일은 사실 평택에서 미군기지 이전 반대 범국민대회가 있어서 고민을 좀 했다. 지난 5월 5일 이후 이런 저런 이유로 평택에 못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가고 싶었다. 그렇지만 새만금에 가겠다고 진작부터 공언을 하였고 또 정말 새만금은 가고 싶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평택을 가자고 속으로 다짐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답사 버스를 탔다.

일행은 얼마 전에 팔순을 맞이하신 김수룡 선생님과 김영식 선생님 등 장기수 할아버지 두 분, 김호현 양심수 후원회 부회장님을 비롯하여 어른이 한 17명 정도, 양심수 후원회 소속 가족들의 자제들 및 선생님을 따라 용감하게 답사에 따라나선 용인 지역 학생들 등 어린이들이 한 15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학생들이 기행에 많이 참여한 것은 오감시통 기행 역사상 처음 이라는데……. 역시 집에서건 거리에서건 아이들이 많아 세상사는 것 같다. 어쨌든 버스 안은 갑자기 들이닥친 학생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때문에 더욱 활기차게 느껴졌다.

첫날 갔던, 인구 30만도 안 되는 군산은 내가 여지껏 가 본 소도시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도시이다. 금강 하구에 자리잡은 항구 도시로, 조용하고 깨끗하고 아담하고 경치도 좋았다. 무엇보다 군산은 우리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를 안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군산이 역사에 등장한 것은 삼국 시대로, 백제 멸망 후 백제 부흥군과 일본군이 연합하여 당과 신라 연합군과 싸웠던 백강구 전투가 있었던 곳으로 추측되며, 675년 신라와 당이 한반도의 패권을 둘러싸고 한판 싸움을 벌였던 기벌포 전투의 무대이기도 하다. 또 고

려 시대에는 최무선이 만든 화약 무기로 왜구를 상대로 전투를 벌였던 진포 대첩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군산은 뽀뽀뽀 해도 일제시대 미곡 반출 항구로 유명하다. 군산은 1899년에 개항한 이후 일제에 의해 계획도시로 육성되었으며, 일본인 지주가 제일 많이 살고 있었으며, 1920년대에 실시된 산미증식계획으로 생산된 엄청난 양의 미곡들을 일본으로 반출했던 바로 그 항구이다. 그래서인지 시내 곳곳에 일제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우리는 군산시청 학예사로 근무하는 김중규 씨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예전 일본인 농장 건물에 세운 발산초등학교건물을 시작으로 군산 시내에 흩어져 있는 일제시대 건물들을 찾아보았다. 일본인 시마타니의 농장 건물을 이용하여 세운 발산초등학교 안에는 일본인 농장주가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우리의 석탑, 석등, 맷돌, 귀부 등으로 꾸민 정원과 보물 창고처럼 여겨지는 3층 건물이 있었다. 감옥으로도 이용된 이곳에 보관된 많은 골동품은 미군정 시기에 서울로 옮겨졌다고 한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군산 최고의 농장(여의도의 10배가 넘는)이었던 구마모토 농장의 의사였던 쌍춘 이영춘 선생이 살았던 이영춘 저택이었다. 구마모토 농장의 2만여 명이나 되는 소작인들을 진료했던 이영춘 선생은 해방 후 현재 군산간호대학인 개정병원을 세운 인물로, 한국의료계에 큰 업적을 남긴 분이라 한다. 원래는 농장주인 구마모토의 별장이었고, 해방 이후에는 이영춘 선생이 거주했던 이영춘 저택은 겉모습은 사진에 나올 듯한 외국의 아담한 별장 같다. 운 좋게 내부를 구경할 수 있었는데, 일제시대를 다룬 사극에서 많이 본것 같은 거실에 우리 일행 모두 둘러앉아 3m 높이의 천정에 매달려 있는 서양식 낚시 상들리에와 외국 가구들, 우리에게겐 보기 드문 벽난로 등의 실내 장식을 둘러보면서

이 집의 역사와 이영춘 선생의 업적을 들었다. 그리고 운 좋게 나는 건물 뒤편으로 갔다가 병상에 누워계시는 이영춘 선생의 부인을 창밖으로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한때 군산 시내 제일의 건물이었으나 이제는 너무 낮은 조선은행 군산지점 건물, 서울에 남아 있는 일본식 건물을 연상시킬 정도로 예쁜 군산세관 본관, 쌀을 실어 날랐던 부두(뜯다리), 일본인 저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 일본식 절인 동국사 등을 구경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설명들을 해주신 김중규 씨의 딸과 아들도 아빠를 졸졸 따라다녔는데, 특히 다섯 살 된 아들은 우리 기행단의 귀여움을 독차지하였다. 아이도 시간이 흐르면서 멀리서 온 형들과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노는 것이 즐거웠던 모양이다. 한눈에도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식 사찰과는 모양이 많이 다른 일본식 절인 동국사에 들려 주지스님으로부터 절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때 주지스님께서 우리 일행이 세대 간의 조화가 아주 잘된 일행이라고 감탄하셨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지 세대 간의 친밀한 교류가 끊겨서인지 몰라도 80대와 70대, 50대, 40대, 30대(나 포함, 유감스럽게도 20대는 없었음), 10대와 10살 미만의 꼬마들로 이루어진 우리 일행의 모습은 세대 간의 소통과 조화를 상징하는 것 같아 보기 좋았다.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야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을 겪으셨던 김영식 선생님을 통해 주권 없는 민족의 고통을 전해들을 수 있고, 편식하는 어린 학생들을 야단치셨던 장연희 선생님을 통해 우리 먹을거리를 왜 먹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젊은 세대는 소통을 통해 차츰 인생의 경험을 쌓아가고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군산을 어느 정도 둘러본 후 우리나라에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인 김제평야를 내달려 새만금이 있는 부안으로 향했다. 숙박은 부안 주민들의 문화생활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올해 문을 연 부안생태 문화활동소에서 해결하였다. 이곳은 폐교 건물을 이용하여 잠잘 곳, 식당, 도서관, 세미나실, 전시실 등을 꾸민 곳으로 소장은 부안 출신으로 부안핵폐기장 반대 투쟁과 새만금간척반대 투쟁에 적극 참여하셨던 사진작가인 허철희 선생님이다. 유기농 채소로 지은 맛있는 저녁(정말

맛있었다)을 먹었는데, 학생들은 하나같이 음식이 별로라고 했다. 야채와 생선 위주의 식단 때문인가?

저녁 식사 후 전시실에 들러 허철희 소장님이 그동안 찍으셨던 수많은 꽃과 나무들, 새만금에 사는 생물체들, 그리고 부안 핵폐기장건설 반대 투쟁사진들을 구경하였다. 특히 수백 명은 족히 될 듯한 인물 사진들이 압권이었다. 부안을 핵의 공포로부터 지켜낸 부안 주민들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지금 벌어지는 한미FTA저지 투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내게 “똑바로 잘해라!”하고 주의를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9시 반부터 11시 가까이 부안의 역사와 자연, 새만금 간척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소장님의 강의와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였다. 2003년 있었던 부안 사태(?)는 당시 전국적인 관심사였다. 1990년에 있었던 안면도 항쟁에 버금갈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국책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건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의 적극적인 발현이었다. 결국 주민 투표 끝에 압도적인 반대로 핵폐기장 유치는 막아냈지만 그 투쟁으로 인해 위도와 부안 주민들 간, 또 관과 주민들 사이에 엄청난 감정의 골이 생겼다. 행정 편의주의로 일관하는 정부의 정책이 지역 공동체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잘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핵 폐기장 문제가 해결되었나 싶었는데 또 부안에 근심거리를 던져준 것이 바로 새만금사업이다. 일찍이 노태우가 당시 부족한 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전북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추진 계획은 더 일찍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엄청난 사업비와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공사 강행과 중단을 왔다갔다 하는 상태에 있다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현실화되었고, 결국 지난 4월 21일 마지막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거대한 방조제가 모습을 드러냈다. 환경 단체와 부안 주민들은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생태계의 보고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계 수단이기도 한 새만금을 지키기 위해 집회에 서부터 법정 투쟁까지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나지 않은 채 배회하고 있는 박정희식 개발 독재의 망령은 결국 대법원에서 새만금 방조제 공사 추진 결정이 나면서 새만금의 마지막 숨구멍이 끊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생태계 파괴의 현장인 새만금 갯벌에는 다음 날 오전에 갔다. 간척지로 유명한 계화도 갯벌과 물막이 공사로 바닷물의 유입이 끊겨버린 새만금 방조제 안쪽의 갯벌을 보았다. 계화도 갯벌은 부안생태문화활력소에서 영상으로 보았던 송어(물론 치어) 참게, 따개비, 굴, 기타 등등의 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살아 있는 갯벌이었다. 마침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었는데, 서서히 밀려들어오는 바닷물이 어느새 무릎까지 차올랐지만 모처럼 바다와 만난 아이들은(일부 어른들도^^) 마냥 즐거운 모양이다. 수영하고, 파도에 옷이 젖어도 바다 쪽으로 더 다가가고, 해변을 따라 걷고, 얼굴과 팔 등에 진흙을 바르고, 곳곳에서 송어의 치어를 잡고, 소리굽질 속에 사는 집게를 잡고……. 이게 바로 자연 공부라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연은 우리에게 배움터와 놀이터를 동시에 제공한다. 하물며 경제적 가치가 상상을 초월하는 갯벌을, 그것도 이 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새만금을 메워버리고 거기다가 농토니 공장들을 짓겠다고 난리를 치는 정부는 개발 귀신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처럼 보인다. 방조제 안쪽 새만금 갯벌은 우리가 갔을 때는 장마 탓에 그나마 물기가 있었지만 평소에는 가뭄에 목 타는 논처럼 거북이등 모양으로 짝짝 갈라져 있다고 한다. 그곳에 살던 생물들은 진작에 죽고, 얼마 전에는 물막이 공사로 예전과 같지 않은 갯벌에서 그레질(백합 채취)하시다가 새만금의 딸 류기화 님이 숨지기도 하였다.

정부는 새만금 물막이 공사를 강행하였지만 이후 흙을 더 가져다가 갯벌을 완전히 메꾸는 공사가 오히려 여지껏 했던 공사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면서도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 알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물막이 공사에 필요한 거대한 돌과 흙을 제공하느라 새만금 주변의 산들은 흉하게 잘려나가 황토색 속살이 고스란히 드러난 채 있었다. 이번과 같은 엄청난 비가 내리면 저렇게 잘려나간 산이 인간에게 복수를 하듯 산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그 피해는 또 그 지역 서민들이 받아야 한다.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개발주의자들의 로비에 의해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이 땅의 건설 바람은 빨리 그쳐야 한다. 또 국민들도 당장 자기 지역이 개발된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더 먼 미래, 즉 당대의 우리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의 지나친 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기행의 마지막은 내소사이다. 백제 시대에 창건되었다고 하니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사찰이다. 내소사에 들어가기 전 길이가 좀 짧은 전나무 숲길은 수령이 몇 백 년 된 엄청난 높이의 전나무들이 양 옆에 줄지어 선 채 이곳에 들어서는 중생들에게 신선한 전나무 향을 제공하고 있다. 바다와 갯벌을 주로 보다가 이렇게 삼림 육까지 하게 되니 마지막을 정말 멋지게 장식하는 듯하다. 내소사는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단청과 웅장한 규모의 건물들은 볼 수 없지만 오래된 나무 기둥들과 우람한 당산나무, 대웅보전의 국화랑 연꽃무늬 문살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탕화가 소장되어 있다.

학교 때 4년 내내 답사를 다니면서 전국의 웅만한 사찰들을 다녀봤지만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서 새롭게 단장되고 확장된 것들이 많아 내소사만큼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사찰들도 보기 힘들었던 것 같다.

내소사 입구에는 가을 전어 굽는 냄새에 집나간 머슴리도 돌아온다는 그 유명한 전어를 파는 가게들이 많았다. 들어가서 먹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있었지만 꼭 참았다. 내소사를 끝으로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간단한 평가회를 가지면서 이번 기행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일제 식민지와 생태계 문제.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일 것 같은 두 문제는 사실 하나로 이어진 것이다. 우리는 해방 이후 일제 식민지 시절의 문제를 거의 청산하지 못했고, 친일의 기억을 갖고 있는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면서 전국을 개발 독재의 광풍에 몰아넣었다. 이후 역대 정권들은 박정희를 흉내 내 전국을 공사장화하면서 자연 파괴를 일삼고 있고, 거기에 길들여진 현대 사람들은 당장의 불편한 생활을 못견뎌 하고 있다. 사실 자본주의의 발흥으로 대량 생산과 소비,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고작 300년밖에 안 된 일이다(우리 역사는 훨씬 더 짧다). 인간이 이렇게 오만하게 자연을 훼손한다면, 또 그것을 제지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언젠가는 역사와 자연으로부터 버림받으지도 모른다. ☹

사법정의 외면한 8.15광복절 사면을 규탄한다.

정부는 8월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5일자로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 관련자 5명, 분식회계·부실계열사 부당지원 경제인 17명, 70세이상 고령자 및 임신부 65명, 부안 방폐장 유치 반대시위사건 관련자 55명 등 142명을 특별사면 조치했다.

광복절 61돌을 맞아 결행된 이번 대통령 특별사면에서는 진정 사면의 우선 대상자인 양심수는 철저히 제외시키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자였던 불법·비리 정치인들과 일부 경제인등을 풀어주고 있어 대통령 사면권을 통한 사법정의 구현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

비록 법을 어겨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일정한 반성과 교화기간을 거친 고령자 또는 임신부에게 형집행면제 등 특별사면을 했거나 환경파괴 우려 등으로 방폐장 유치 반대시위를 벌였던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조치에 대해서는 구태여 반대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적 분노가 하늘에 사무쳤던 2002년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은 그 규모가 엄청나고 실제로 ‘차떼기’ 까지 자행했던 범죄가 아니었던가? 이들은 이미 2005년 광복절 사면에서 대부분 풀려났고 이번 8.15 사면에서는 남은 모두가 사면·복권 되었다. 세상을 발각 뒤집어 놓았던 부정·비리 범죄자들에게면 죄부를 짚어주는 정략적 사면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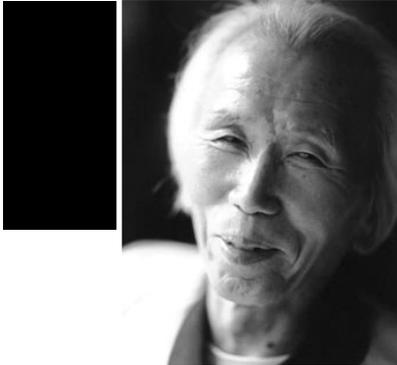
어디 그뿐인가. 더욱 분노할 일은 위에서도 말했지만 양심수들을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점이다. 이번 사면에 포함된 단 한사람 양심수인 민주노동당 강태운 고문 마저도 몇몇한 양심수로서의 사면이 아니라 70세이상 고령자로 분류한 형집행면제이었을 뿐이다.

6.15공동선언시대 이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이미 그 존립명분을 잃고 있지 않았던가? 이같은 반인권, 반통일 악법으로 부당하게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잘못된 사법조치에 대하여 대통령 고 유권한인 사면권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았던가?

또한 노동3권 보장과 생존권을 위해 활동했던 노동자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주장했던 활동가,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해 활동해온 철거민, 그리고 평화의 땅 생명의 땅을 지키려했던 양심적 활동가들이 하나같이 사면에서 제외되었다. 더구나 미결은 물론이고 기결양심수들 마저 단 한사람도 사면명단에 없었고 특히 형기의 2/3이상을 복역한 유성기업노조의 엄기준 노조원, 만기출소를 3개월, 2개월 남겨놓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조정의민 활동가, 주거권주장의 홍경희 철거민 등 조차 제외되었다. 8.15광복절에 일반형사 피의자 7561명이 가석방되고 있음과 대비되고 있다. 바로 양심수이기에 철저하게 보복형을 당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했다.

우리는 이처럼 사법정의를 외면한 광복절 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양심수는 처음부터 구속대상도 아니었다. 공동선을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한 이들을 더 이상 감옥에 가두어서는 안된다. 양심수를 구속하는 반인권 반통일악법을 없애고 빠른시일안에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고 사면·복권 할 것을 촉구한다. ㉸

2006년 8월 14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송환 비전향장기수 고 김석형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2000년 9월 2일 비전향
장기수 1차송환으로 복讞
고향으로 돌아가셨던 김석

형 선생님이 2006년 8월 14일 오후5시 오랜 옥고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김석형 선생님은 1914년 4월 13일 평안북도 박천군
덕안면 남호동에서 출생하시어(낙성대 ‘만남의 집’에
계시는 동안 양심수후원회 등 조사 - 아래사항도 같
음) 어린 나이때부터 서당에 들어가 천자문, 소학, 대
학, 자치통감 등 한학을 하셨고 1929년 김옥희님과 결
혼 하셨으며 이후 4남2녀의 6남매를 슬하에 두셨습니
다. 이어 고향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신의주 삼무
중학, 만주 신경(장춘)신무학교 등에서 수학 하셨으며
이 기간 항일운동단체인 ‘건심청년단’ 조직과 야학활
동도 하셨습니다. 이후 1945년 조국광복이 될 때까지
박천군 수리조합공수(기사)로 일 하시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1945년 8.15해방이 되자 고향인 덕안면
에서 치안활동을 하셨고 1946년엔 조선공산당 덕안면
당 위원장, 덕천군당위원회 노동부장 등을 역임 하셨
습니다. 1947년에서 1948년 사이에는 평안북도 보안
부 도강계, 여러 군급에서 보안, 정보, 경비계통에서 일
하셨습니다. 또한 내무부 38경비대대(해주) 38여단
(사리원) 등에서 정보업무에 종사 했으며 1948년부터
1950년 까지는 함경남도 정치보위부 제1과장을, 전
쟁시기에는 중국지원군 전투지원임무를 맡으셨고
1953년에는 조선공업기술연맹 함경남도 위원장(합
홍), 1955년~1958년의 기간에는 조선국제여행사 합

흥분재소 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1961년 갈라진 조국을 하나되
기 위한 통일사업을 하시기 위해 남녘으로 오셨으나
이듬해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반공법위반혐의 등으로
무기형이 확정되어 이후 1991년 12월 24일 노약자이
기에 비전향으로 출소하기까지 31년의 오랜 옥고를
치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연고자였기에 함께 출
소한 조창순 선생님과 아산 요양소에 계셨지만 양심수
후원회 등 주선으로 서울로 올라오시어 봉천동 정봉
수·김승자님댁에 계셨다가 1994년 양심수후원회에
서 마련한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옥중동지들과 송환
될때까지 함께 생활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개인생활에서조차 원칙에 충실 하셨
으며 확고한 세계관과 지향에 대한 신심이 강하셨습니
다. 그러면서도 자상하고 친절하며 모든 선의의 사람
들에 자애로우셨습니다. 80노인이면서도 책 읽기와
글쓰기를 멈추지 않으셨으며 놀라운 기억력과 판단력
으로 주변 사람들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연세 많으시어 어쩔 수 없이 한 생을 마치셨
지만 그리고 그리고 그리운 가족들 후손들 모두 만나시고 신
념의 고향을 찾으셨지만 평생의 염원 통일조국 그 날
을 보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어 안타깝기 그지 없
습니다. 아직 못다한 민족적 과제들은 남은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이제는 고이 잠드소서 瘞

2006년 8월 14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이성렬 통일만평 2006.7.25



장봉군 한겨레그림판 2006.7 ▶

후원회원 가입 및 후원금 자동이체(CMS)신청해주세요!

그동안 바쁘고 번거로워서 회비를 못내셨던 분들도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회비를 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양심수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 FAX : 02-888-4470 ■ E-mail : yangsimso@hanmail.net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매월 챙겨가며 은행에 회비를 납부해야하거나 자동이체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후원회 사무실로 전화주세요.(874-4063)

성 명		예금주	
연락처		거래은행	
예금주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 소			
후원금액	5천원(),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30만원(), 기타()		

2005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 개인신상정보의 비밀은 철저히 지킵니다.
- 출금일은 매월 5일이며 잔액부족 등으로 미이체시 15일 또는 23일에 이체됩니다.
-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 2006년 8월 14일 현재 총 126명 민가협 조사집계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가미결
조희구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7-02	집시			대구구 86	미결
이극문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7-12	집시			대구구 81	미결
장장원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7-02	집시			대구구 74	미결
신현범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7-07	집시			수성경찰서	미결
문강호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7-07	집시			대구구 99	미결
문정우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7-06	집시			대구구 68	미결
이성우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7-06	집시			대구구 96	미결
이길우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7-06	집시			대구구 91	미결
김은수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7-06	집시			대구구 71	미결
오상룡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7-02	집시			대구구 70	미결
홍중현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6-15	집시			대구구 98	미결
장광수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6-15	집시			대구구 75	미결
조기현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6-15	집시			대구구 79	미결
이준현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6-15	집시			대구구 64	미결
김용렬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6-15	집시			대구구 61	미결
김원수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6-15	집시			대구구 82	미결
신호철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6-15	집시			대구구 78	미결
박성원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6-15	집시			대구구 97	미결
윤종대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7-20	업방			대구구 52	미결
이상경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7-02	집시			대구구 73	미결
하동현	노동자	건설노조(충남)	노조활동 관련	06-06-16	업방			천안구 5554	미결
이옥선	노동자	건설노조(충남)	노조활동 관련	06-06-16	업방			천안구 5057	미결
유철수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19	미결
박성기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20	미결
권석공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21	미결
박대천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22	미결
권영대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23	미결
주운해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24	미결
정형기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18	미결
박득우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26	미결
김성배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10	미결
남병섭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25	미결
장철환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17	미결
최영규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16	미결
신수복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15	미결
박성웅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14	미결
윤재현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13	미결
김영식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11	미결
황병희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08	미결
김윤석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06	미결
장사욱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27	미결

김도섭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09	미결
김정호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12	미결
김달호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58	미결
정갑도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48	미결
김중우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49	미결
진덕원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50	미결
김상은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51	미결
김병일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52	미결
송무근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53	미결
김상웅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55	미결
박웅희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47	미결
공창규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57	미결
박정진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54	미결
황성대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59	미결
박성훈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60	미결
고진덕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61	미결
박훈규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62	미결
좌철석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63	미결
김운식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28	미결
이정모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07	미결
장재운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8.9 농동자대회(포항)	06-08-14	집시			포항 북부서	미결
이 순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56	미결
이희만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32	미결
황재일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29	미결
이인수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30	미결
박재홍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31	미결
김삼근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33	미결
이중철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34	미결
이지경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35	미결
정은식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36	미결
정승중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37	미결
김병걸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38	미결
심진보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39	미결
권일영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45	미결
김명선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40	미결
김봉태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41	미결
김학노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42	미결
김용조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43	미결
김중무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44	미결
최진동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 폭력			포항교 3046	미결
유기수	노동자	건설연맹	8.9 농동자대회(포항)	06-08-14	집시			포항 북부서	미결
이영도	노동자	건설연맹(울산)	8.9 농동자대회(포항)	06-08-14	집시			포항 북부서	미결
전필원	노동자	건설연맹(울산)	8.9 농동자대회(포항)	06-08-14	집시			포항 북부서	미결
박해욱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7-05	업방, 폭력	1년6월+1년	2008/01	대교교 52	기결
강상규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12-29	업방, 폭력	10월+8월	2007/06	부산교 874	기결
이문희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크레인시위	05-05-17	업방, 폭력	1년6월	2006/10	진주교 6	기결
최석영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4-08	업방, 폭력	1년6월+1년	2007/10	대교교 86	기결
박태규	노동자	금강회섬	노동자대회(11.9)	03-11-12	집시, 폭력	1년6월+1년6월	2006/11	부산교 1406	기결

이원준	노동자	대구지하철노조	노조활동 관련	06-03-15	업방	8월	항소중	대구교 80	미결
이영철	노동자	덤프연대	파업	06-06-10	업방, 집시			인천구 5030	미결
최근식	노동자	민주노총	89 노동자대회(포항)	06-08-14	집시			포항 북부서	미결
김용직	노동자	민주노총(충북)	하이닉스 노조 집회 등	05-06-13	집시, 특공	1년6월	2006/12	청주교 792	기결
김성환	노동자	삼성일반노조	노조활동 관련	05-02-22	명예훼손, 정통법	3년+2월+6월	2008/10	영등포교 13	기결
서훈배	노동자	전국학습지노조	복직촉구 농성	06-05-03	업방, 폭력			서울구 193	미결
엄기준	노동자	(주)유성기업 노조	노동자대회(11.9)	03-12-10	집시, 폭력	1년6월+2년6월	2007/12	대전교 2999	기결
송진만	노동자	코오롱 노조	해고자 복직투쟁	06-06-07	업방, 특공			송파경찰서	미결
황윤석	노동자	코오롱 노조	해고자 복직투쟁	06-03-27	집시, 폭력			서울구 13	미결
최일배	노동자	코오롱 노조	해고자 복직투쟁	06-03-27	집시, 폭력			서울구 22	미결
이수중	노동자	전국티워크레인기사노조	불법파견철폐, 고공농성	06-06-12	업방, 집시	10월	항소중	수원구 313	미결
신재교	노동자	하이닉스 하청노조	노조활동 관련	05-10-21	집시, 폭력	1년6월	항소중	청주교 726	미결
조가영	노동자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철폐 시위	06-04-20	공방			울산구 965	미결
김준규	노동자	현대차이산사내하청노조	출입금지 가처분	06-07-17	민사소송법	6월	항소중	대전교 6734	미결
오지환	노동자	현대차이산사내하청노조	출입금지 가처분	06-07-17	민사소송법	6월	항소중	대전교 6916	미결
권수정	노동자	현대차이산사내하청노조	출입금지 가처분 금지	06-07-17	민사소송법	8월	항소중	대전교 70	미결
조대익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조확약서 이행촉구	06-05-15	업방, 폭력			서울구 90	미결
박정훈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조대량해고반대 농성	05-11-05	특공, 치상	1년6월	2007/05	순천교 1695	기결
정경진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조확약서 이행촉구 크레인 농성	06-05-15	업방, 폭력			서울구 76	미결
전욱용	재야	개인	북한방문	04-11-18	국보	3년6월	2007/05	광주교 5009	기결
최재영	재야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6-03-06	병역법	1년6월	2007/09	진주교 1204	기결
김훈태	재야	교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6-05-22	병역법	1년6월	2007/11	평택구 205	기결
이승규	재야	다산인권센터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7-28	병역법	1년6월	2007/01	김천교 569	기결
김지태	재야	대추리 주민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06-06-05	업방			평택구 201	미결
김영진	재야	민주노동당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6-01-19	병역법	1년6월	2007/07	의정부교 1723	기결
문상현	재야	사회당(서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7-19	병역법	1년6월	2006/12	청주교 844	기결
윤치고	재야	사회보호법출소자모임	청송감호소 처우형의	04-06-20	특기법	1년+6월	추기기소	춘천교 451	미결
최진	재야	작은누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6-28	병역법	1년6월	2006/12	청송제2교 1329	기결
김태훈	재야	전쟁없는 세상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6-05-17	병역법	1년8월	항소중	서울구 1494	미결
서창석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치사	2년6월	상고중	서울구 20	미결
성낙경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5-03	화염병, 치사	6년	상고중	서울구 61	미결
홍경희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5-20	특공, 공방	1년6월	2006/10	청주여 15	기결
정창윤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치사	3년	상고중	안양교 1588	미결
김정덕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3년	상고중	서울구 62	미결
김학명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3년	상고중	서울구 10	미결
오정록	재야	평화네트워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6-02-07	병역법	1년6월	2007/08	서산구 103	기결
조경민	학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5-17	병역법	1년6월	2006/11	포항교 223	기결

01-----

한·미FTA저지를 위한 교수·학술단체공대위, 금융공대위, 문화·예술공대위, 시청각미디어공대위, 영화인공대위 등은 대학로에서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스크린쿼터 원상회복 및 한·미FTA저지를 위한 대회'를 열고 '참여정부엔 국민이 없다'고 규탄하다. 김세균 교수·학술공대위 공동대표, 신학림 시청각미디어공대위 공동대표, 정용건 금융공대위 공동대표, 전농 문경식 의장,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대표 등의 결의 발언과 권영진 교수·학술공대위 집행위원장 등 4명이 결의문을 낭독하다. 집회를 마치고 광화문까지 행진했고 열린시민공원에서 영화인들과 함께 촛불문화제를 열다.

02-----

경북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 폐광산 입구에서 '전쟁시기 코발트광산 학살자 추모제'가 '경산 코발트 피학살자 유족회'주최로 열리다. 전쟁시기 이승만 정권이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좌익수와 청도·경산 등에서 예비검속한 보도연맹원 등 3500여 명을 학살했던 곳이다. 서울에서 전민특위 이규재 의장과 김규철, 권오현 감사, 김영승 조사팀장, 대전의 안응찬 집행위원장 등 함께하다.

03-----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평택범대위 주최로 '평택 평화도보행진 번바리선언 기자회견'을 열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와 한·미FTA협상반대를 위해 5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대추리까지 258리를 행진할 예정인 평화행진단은 청와대, 국방부, 정부, 미군, 검·경을 반평화 5적으로 규정하고 5일 동안의 행진과 행사내용을 발표하다. 또한 행진에 도움을 준 번바리 578명의 명단을 발표하다.

열린시민마당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추모연대 등 공동으로 '제17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행사위원회 결성식'을 갖고 9.11~16까지를 추모기간으로 하여 각종 학술행사, 문화예술행사, 모역참배, 지역합동추모제, 열사 관련 교육지침 토론회를 열기로 하다.

열린시민공원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한·미FTA저지 범국민 행동지침 발표 기자회견'을 열다. 이보다 앞서 있던 범국민 대표자회의에서는 12일 오후 4시 2차 범국민대회, 6시 청와대 인간띠잇기 등 5대 행동지침을 결의하다.

공덕동 계승연대 회의실에서 계승연대 임시 이사회와 주관단체 대표자회의를 열다. 활동보고,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 개정관련 사업보고가 있었고, 본회의에서는 권오현 이사를 임시의장으로 호선하고 '사단법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이사회 임원선출인을 상정 심의하여 이사장 1명, 부이사장 6명을 선출하기로 하고 현재 계승연대 상임공동대표 중에서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뽑기로 하여 심의결과 이사장에 권오현, 부이사장에 강민조, 박중기, 오종렬, 임기란, 정동익, 조

준호로 결정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이른바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 4차공판을 열고 증인, 증거신청을 마친다.(후원회소식 177호 기사참조)

04-----

한·미FTA저지범국민본은 종로경찰서 앞에서 '합법적 집회를 방해한 종로경찰서장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범국민본은 청와대 인간띠잇기를 위해 경복궁 동문 앞, 감사원 인근 공터 등 13개 지점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종로경찰서는 '교통혼잡유발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지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데 대한 항의였음.

05-----

청와대 인근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평택범대위 주최로 평택미군기지확장과 한·미FTA협상을 반대하는 청와대에서 대추리까지 걷는 '평화야간자' 도보행진 길트기 기자회견'을 열다. 이어 16개 단체와 개인 등 40여 명과 하루 참여인원 등 150여 명이 평화행진에 들어가다. 이날 낮 국방부 앞에 도착 규탄집회를 열고 사당역에서 촛불집회, 과천 무지개학교에 도착 이날 일정을 마친다.

이날 새벽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오전 3시 32분에서부터 오후 5시 22분까지 스커드, 노동미사일 등 6기와 함북 화대군 대포동 발사대에서 대포동2호 1기를 발사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노동, 스커드미사일은 오전 3시 32분, 4시 4분, 7시 13분, 7시 30분, 8시 17분, 오후 5시 22분에 발사했고, 대포동2호는 오전 4시 59분에 발사했으며 노동, 스커드미사일은 이북이 이미 선포한 항해금지해역에 집중 발사되었으며 대포동2호는 발사 42초만에 레이다에서 사라져 실패한 것 같다고 보도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한국, 대만, 일본, 오키나와 등 4개 지역 연대단체는 '야스쿠니 국제반대 공동행동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8월 15일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에 맞춰 8월 11일~15일까지 야스쿠니 주변에서 공동촛불행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하다. 또한 공동행동은 한국인, 대만인 전사자의 강제 합사를 규탄하고 야스쿠니 신사 진상조사제소, 유엔 인권이사회제소 등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히다.

06-----

민기협 623회 목요일회가 탑골공원 앞에서 열리다. 권오현 공동의장의 여는말, 김동규(한미FTA저지범국민본) 한미FTA반대호소 및 투쟁일정 발언, 최현숙 민노당 성수자위원회 위원장의 성전환자 호적성별 정정허가대법원결정의 의미에 대한 발언 등이 있었음. 이북의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외무성 답변 형식을 통해 “이번에 있는 성공적인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를 위한 우리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의 일환이다.”라며 “주권국가로서 우리의 이러한 합법적 권리는 그 어떤 국제법이나 북·일 평양선언, 6자회담공 동성명과 같은 쌍무적 또는 다무적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또한 “미사일 기술통제 제도에 가입한 성원국도 아니고 1999년 미국과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임시 중지와 관련해서는 조·미 사이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만 한한다.”라고 하다. 또한 “미국과 일본이 우리 주변에서 술한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언제 한번 우리에게 통보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6자회담 9.19성명에서 공약한 대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만약 그 누가 이에 대해 시비질을 하고 압력을 가하려 든다면 우리는 부득불 다른 형태의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다.

07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중합청사 앞에서 오전에 발표한 정부 6개부처 장관의 성명과 관련 '6개부처 장관 담회문 비판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작 중단하고 합법시위 보장하라.”라고 촉구하다. 범국민본은 “정부와 경찰이 범국민본을 비판한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으로 그들이 할일은 평화 시위를 폭력시위로 여론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 집회를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하다.

08 -----

'평화야 겐자! 4일째를 맞아 이날 낮 평택구치소에 도착한 행진단은 하루 행진 참여단 등 300여명이 구치소 앞에 모여 김지태 평생 주민주권위원장과 강상원 집행위원장석방을 촉구하는 '구속자 석방 결의대회'를 열다. 이어 '평택경찰서 행진 규탄집회'를 열고 다시 평택역 광장에서 늦은 7시부터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촛불문화제'를 열다. 문정현 신부의 여는말, 변연식 행진단 공동단장 등 보고 발언, 주민대책위 도두리 이상렬 이장의 결의발언,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의 김지태 위원장 면회보고와 문화공연이 이어지다.

평택구치소 앞에서 구속자 석방 결의대회를 마치고 민가협 이영 상임의장, 권오현 공동의장(양심수후원회장), 서경순 전 상임의장, 유민호 총무 등 민가협 회원들은 김지태 위원장을 면회하다. 김위원장은 건강했으며 평택기지 확장 반대 의지도 확고했고 주민들과 범대위 여러분께 건투를 빈다고 하다.

평택역에서 촛불문화제를 마친 평화행진단 200여명이 대추리를 향해 원정3거리에 이르렀을 때 대기하고 있던 상인 150여 명은 행진단을 향해 각목 등으로 집단폭력을 자행하여 행진단 가운데 많은 이들이 크게 다치다. 그들은 차량방송까지 동원 욕설을 퍼붓고 돌과 계란을 던지는가 하면 선발대로 가던 평택지킴이 끈 아무개 씨를 각목으로 집단폭

하다. 그러나 경찰은 지켜만 보고 불법 폭력자들을 막지 않았음. 1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고 끈 아무개 씨는 박애병원으로 실려 가다. 행진단은 상인들의 집단폭력행위를 방조한 경찰당국에 항의하기 위해 평택경찰서 앞에서 농성을 하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행진단 45명을 불법강제연행하여 군포경찰서에 9명, 안성 11명, 수원남부 14명, 성남수정 11명을 분산 수감하다.

한국노총은 대학로에서 5000여 조합원이 함께한 가운데 '한·미FTA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으로 한·미FTA 협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결의하다. 이응득 위원장 대회사, 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 미국노총 산별회의 제프 보그트 정책국장 등 연대사가 있었음. 참가자들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규정 규정'과 한·미FTA를 상징하는 대형 현수막을 머리 위로 올려 찢어 버렸고 한·미FTA와 노사관계 로드맵을 들고 있는 악마형상의 조형물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갖다.

09 -----

평택경찰서 앞에서 평화행진단은 '7월 8일 경찰 폭력만행 규탄 평화행진보장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경찰이 안정리상인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폭력 행패에 수수방관했다고 책임을 추궁하다. 또한 무차별 강제연행을 규탄하다.

'평화야 겐자! 평화행진단 300여 명은 대추리로 가는 원정3거리에서 경찰의 저지로 더는 행진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농성을 하며 평화행진보장촉구 집회를 열다. 대추리 도두리 주민과 만난 행진단은 대추리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평택지킴이 결의대회'를 열다. 도두리 이상렬 이장의 결의발언과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가 '평택지킴이선언'을 낭독하는 것으로 5일간 이어진 '평화야 겐자!'의 모든 행사를 마치다.

10 -----

한·미FTA 협상이 시작되는 이날 한·미FTA저지 범국민본은 회담이 열리고 있는 신라호텔 부근 장충체육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으나 수백명 경찰의 폭력방해로 약식으로 열리다. 경찰은 기자회견 무대로 사용할 방송차량을 끌어가려 했으나 참가자들의 완강한 저지로 지켜내고 범국민본 오종렬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치다. 이어 민주노총, 한국노총, 미국노총 산별회의, 승리 혁신 등 한·미 4개 노동단체 공동으로 '한·미FTA협정반대 기자회견'이 있었고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기자회견, 400여 시민사회단체의 상설협의체인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도 FTA반대 기자회견을 열다.

참여연대, 한국청년단체연합, 녹색연합, 평화네트워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어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은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발표하다. 발표에서는 “북의 미사일 발사 배경에는 부시정부의 악의적 무시정책, 일

본의 대북강경정책에 책임이 있다.”라며 “대북제재와 압박을 반대한다.”라고 한다.

☞ 이북의 노동신문은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위협한 전쟁불장난’이란 개인 명의 해설기사에서 “림팩-함동군사훈련은 ‘반테러’의 구실 밑에서 우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예비작전 시험 외 다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 다국적 훈련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의 확대개편으로서 조선반도에서 전쟁도발의 불씨를 던져주고 있다. 남조선 표당국이 미국의 위협천만한 북침전쟁책동에 합세해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로 된다. 미제의 침략전쟁책동의 공범자 공모자로 자멸의 길을 걷는 쓸개빠진 짓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라고 경고 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11

☞ 서울고법 형사합의 2부 심리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전상봉 전 의장과 정태일 사무처장, 이승호 현 의장, 박장홍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이 날 공판은 전상봉 전 의장의 모두진술이 있었고 변호인 심문은 다음공판에서 하기로 하다. 이보다 앞서 법원 앞에서는 한청과 통일연대소속단체 성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청 무죄추구 기자회견’을 열다. 이승호 한청 의장의 여는 말이 규제 범남본 의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등 무죄추구발언이 있었고 한청회원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통일연대와 전국민중연대 공동으로 ‘진보진영 북미사일 발사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다.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이 ‘7.5미사일 발사 한반도 정세전망과 대응방향’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익표 박사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란 발제가 있었고 한현수 통일연대 정책위원장, 진경호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김은진 민주노동당 최고의원, 김선주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등의 토론이 있었음. 발제자와 토론자 대부분은 미사일 발사배경으로 미·일의 대북적대정책과 자위적 군사훈련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 광화문우체국 6층 북한자료실에서 양심수후원회가 주관하는 ‘장기수 선생님들과의 이북영화보기’가 있었음. 이 날은 ‘민족과 운명’ 제56부(‘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편 제7부)가 상영되었음. 김규철, 류종인, 임방규, 박정숙, 김선분, 송세영, 김래곤, 한찬욱, 권오현 함께하다.

☞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평통사, 범남본, 양심수후원회 외 여러단체가 함께 하는 ‘제82차 반미연합집회’가 열린다.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의 여는 말, 유영재 사무처장, 이원재 한미FTA범국민 상황실장, 녹색연합 고이진선 활동가 등의 결의발언과 범남본 소순관 부의장의 항의서한 낭독이 있었음.

12

☞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참가할 북측대표단(단장 권호웅 내각참사) 29명이 고려민항편으로 통해 직항로를 통해 김해공항에 도착 남측대표단박병원 재정경제부차관 등의 마중을 받다. 대표단은 곧바로 숙소인 부산 해운대 웨스턴 조선호텔로 이동 남측단장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마중을 받았으며 남북대표단은 이날 저녁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이 장관이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함께하다.

☞ 서울시청광장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시민사회단체와 국제연대단체 회원 등 5만여 명이 모여 ‘한·미FTA저지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가 열리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를 반대하는 각 부문단체 대표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짧게 결의발언이 있었고 ‘FTA’라고 쓴 대형 검은 현수막을 청중들이 머리위로 올려 찢는 상지의식과 차전놀이가 있었으며 ‘희망새’ ‘우리나라’ ‘소리타래’ 등 모든 노래패들이 함께 결의투쟁가를 부르는 것으로 문화행사도 마치다. 이어 참가자들은 을지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 중로-광화문으로 또는 안국동-종로구청-세종로, 서대문-독립문-경복궁 등으로 저지하는 경찰폭력을 밀치며 계속 행진하고 일부 대열은 청와대쪽으로 진출했으나 경찰의 폭력저지로 많은 부상자를 내다. 오후 8시쯤 모든 대열이 마침내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 모여 정리집회를 하다. 문경식전농 의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 한총련 장승희 의장 등 결의발언 등이 있었으며 5,000여 시위대는 오늘 투쟁의 승리와 FTA저지의 자신감을 갖게 되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한찬욱, 소수영, 김재현, 김래곤, 김원진, 권오현 등이 후원회기발을 들고 참여하다. 이보다 앞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전농회원 2만여 명이 모여 ‘농축산인 제2차 결의대회’를 열었고 서울역 광장에서는 민주노총 주최로 1만여 명이 모여 ‘한·미FTA협상저지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전민련, 한총련 등도 따로결의대회를 갖고 시청앞으로 모였음.

13

☞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624회 목요집회가 열린다. 이영 상임의장의 여는말, 인권운동사랑방 최은하 활동가의 박래곤 활동가 구속을 규탄하는 발언,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의 평택평화대행진단에 대한 상인들의 폭력과 이를 수수방관한 경찰의 작태를 고발하는 발언, 민족문제연구소 이관복 연구원의 평택미군기지확장을 통한 미국에 대한 규탄발언, 이귀임 어머니가 낭독한 박래곤 활동가를 석방하라는 내용의 명성서 낭독 등이 있었음.

☞ 범민련 남측본부 박정숙 고문님께서 90세 생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범남본에서는 서울역 인근 음식점에서 박 고문님 90생신 축하연회를 주선하여 선생님의 생신축하와 만수무강을 빌었습니다. 이경원 사무처장 진행으로 이규재 의장, 민가협 임기란 전 상임의장, 통일광장 김영승 선생, 전국연합 노수희 공동의장, 민지통 김일수 의장, 사활력명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노중선 상임의장, 한청 이승호 의장,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 등 축하말씀과 선물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통일되는 세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임금인상과 근로조건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포항지역 건설노조(위원장 이지경)가 포항 포스코 본사에 들어가 포스코의 대체인력투입 등에 항의하여 점거농성을 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음. 건설노조원 3,500여 명은 이날 아침 포스코 정문에 모여 대체인력투입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했으나 포스코측이 이를 거부하자 점거농성에 들어가다.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아무 결실 없이 종결회의를 갖고 북측대표단은 오후 고려민항기편으로 평양으로 돌아가다. 북측대표단은 종결회의에서 이번회담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아래와 같은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보도되다. "남측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위협이 어디로부터 오고, 전쟁위험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도 차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민족끼리'의 회담에서 민족의 리익에 배치되게 남이 하는 소리나 받아 외우면서 회담에 인위적 난관을 조성했다." "남북장관급회담은 군사회담이 아니며 더욱 6자회담이 아니다." "남측은 회담 본연의 사명에도 맞지 않는 상급회담 소관 밖의 문제를 올려놓고 북남관계에서 절실히 해결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내놓은 남북 사이의 협력과 어울린 가족·친척 상봉사업을 시기에 대한 제안을 토의조차 거부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의 리념을 저버리고 동족을 적대시하여 비리성적 태도로 이번 회담을 무산시킨 남측의 처사를 엄정하게 계산할 것이다."라고 하다.

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농민 400여 명이 모여 '한·미FTA저지를 위한 농축산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다. 농민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한·미FTA장례식'에 나서 동국대 혜화문 근처에서 정리집회를 마치고 상징의식으로 상여를 불태우다. 이때 경찰이 방패와 군복으로 기습공격하며 농민들에 소화를 뿌리고 폭행을 자행하다. 문경식 의장도 방패로 얼굴을 가격받아 부어오르는 큰 상처를 입은 채 병원으로 실려 가다. 농민들은 마지막 정리 규탄집회를 열고 해산하다.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전국언론노조 주최로 조합원 4,00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한·미FTA저지 언론노조 총파업집회'를 열다. 신학림 노조위원장의 대회사,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영화배우 최민식 씨, 영화인 대책위 양기환 대변인 등의 연대사가 있었음. 집회를 마치고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하다. 이보다 앞서 전국언론노조는 장충교회 앞에서 '한·미FTA저지를 위한 전국언론노조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하루 펜과마이크를 놓는다."고 하다.

낙성대 '만남의 집'에 봉사원을 보내주던 자활기관의 지원이 오늘까지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원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면서 다시 관

악자활센터로 '만남의 집' 선생님들께 봉사원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신라호텔 맞은편 장충교회 앞에서 '한·미FTA 범국민' 주최로 '한·미FTA협상저지투쟁 보고대회'를 갖다. 정광훈 대표의 대회사, 민주노동당 허영구 부위원장, 이유미 고려대 총학생회장,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등 각계 보고,결의발언과 오종렬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한·미FTA'라고 쓴 종이를 붙인 고무풍선을 터트리고 새끼줄에 묶는 상징의식을 갖다.

15 -----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른바 '북미사일 발사에 관한 제1695호 결의안'을 채택하다. 결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미사일 발사 유예준수 ○전제조건 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 9.19공동성명 추진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안에 NPT협정과 IAEA 안전규정에 재가입 촉구함 등이었고, 유엔회원국들에 대해서는 ○각국의 사법당국과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북조선을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을 북조선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미사일 또는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을 북조선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하고 북조선으로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회원국들에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회원국들이 특히 북조선에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자제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핵확산금지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다. 마지막으로 결의문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하기로 '결정'한다."라고 하여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조치 가능성을 열어놓다. 이에 대해 박길연 주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 전권대사는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라며 "인민군은 앞으로도 자위를 위한역지력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미사일 발사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다

16 -----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 채택과 관련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며 자위적 전쟁역지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아래 성명요지 일부)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배격하며 이에 추호도 구애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극단한 적대행위로 인한 최악의 정세가 도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자위적 전쟁역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필승의 보검인 선군정치를 받들고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우리식대로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다.

☞ 6.15남측위와 북측위는 15~16일까지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오는 8월 14~16일까지 평양 등 북측지역에서 '자주 평화민족대 단합을 위한 8.15통일대축전'을 갖기로 합의하다. 대표단 규모는 남측 200명 해외 150~200명으로 하다.

포항 건설노조원들의 포항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 4일째인 이 날 경찰은 6,900여 병력을 동원 농성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조합원들의 저항으로 포기하고 물러서다. 1층부터 4층까지는 경찰병력이 장악하고 있으며 5층부터 옥상까지는 조합원들이 점거농성 중이다.

☞ 건설산업연맹과 민주노총 경북본부 조합원 1,000여 명은 포항 형산강가에서 경찰의 농성장 진입시도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노동자의 요구사항 실천 결의와 경찰폭력을 규탄하다. 집회과정에서 경찰폭력으로 200여 명이 크게 다쳤고 포항 건설노조 소속 하중근 씨는 방패로 머리를 찍혀 뇌출혈로 중태에 빠져 포항 동국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하다. 하씨는 많은 출혈로 의식이 혼미하고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다.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건설산업연맹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진압책입지와 경찰청장 즉각 사퇴, 현장 책임자 처벌, 폭력행사 중단, 모든 평화적 집회 보장 ○포스코 농성장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 중단, 노·사관계개입중지 및 중립입장 지킬 것 등을 요구하다.

1 8 -----

☞ 남북 문인들의 단일 조직 '6.15민족문학인협회'가 오는 29일 금강산에서 결성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함. '6.15민족문학인협회'는 남측협회(회장 고은)와 북측협회(회장 김덕철)로 구성되며 29일 금강산에서 결성식과 동시에 '남북작가 금강산 문학의 밤'을 개최함으로써 문화예술교류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을 것으로 기대를 모음

☞ 18일~21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노동자들의 상봉행사가 수해와 포스코 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으로 연기 되었다고 상봉행사에 참가하기로 했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발표함. 양대 노총은 6.15북측위 노동분과위원회(위원장 량순길)에 17일 팩스를 보내 남측의 사정을 설명하고 행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18일 다시 행사연기에 대한 사과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짐. 양대 노총은 조만간 북측과 협의를 통해 행사개최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라 밝힘.

☞ 서산에 살고계신 박근직 회원님께서 낙성대 '만남의 집'에 애써 거둔 감자를 가져오셨습니다. 수입개방으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업·농촌·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근직 회원님께서 손수 지은 감자를 선생님들께 직접 가져다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경찰폭력으로 뇌출혈의 중상을 입어 2차수술을 받은 포항 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이 대구동산병원으로 옮겨 C.T촬영을 하고 응급치료를 했

으나 뇌부종 등으로 재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담당의사는 1주일을 넘기기 어렵다고 하다.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건설연맹 플랜트노조협의회 등은 포항 근로복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폭력행태와 건설노조원들 농성장에 단전, 단수 등 압박수위를 높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다.

1 9 -----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 위한 '2차 평화행진 순례단'과 '자전거행진단'이 각각 서울과 군산에서 평택 대추리까지의 순례를 위해 출발함. 이들은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출정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익산-논산-강경-부여-공주 우금치-천안-평택까지 3박 4일간의 여정을 시작.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4차범국민대회'가 열리는 22일 평택에 도착해, 이날 오후 2시 평택역에서 범국민대회를 치르고 대추리까지 행진을 진행하는 일정에 합류할 예정이다.

☞ 서울 을지로 1가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평택286리 평화행진단'이 '경찰과 상인의 불법 폭력행위 고발대회'를 열어 지난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에 걸쳐 경찰과 안경리 상인들이 '평택286리 평화행진단'에게 자행한 야만적 폭력행위를 고발하다.

☞ 동양여운형 선생의 59주기를 맞아 선생의 묘소가 있는 수유리 묘역에서 추모식이 열리다. 한찬욱 운영위원, 권오현 회장, 다녀오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송기인 위원장은 정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자문위원 위촉장을 전달하고 자문위원들과 정리위원회 사업관련 간담회를 갖다. 진실·화해 위원회 자문위원은 고해범 한겨레신문 고문, 권오현 올버튼 과거청산을 위한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 문재인 변호사, 박경서 대한민국민권대사, 박석무 5.18재단 이사장, 이광규 재외동포 재단이사장, 이규정 신라대 명예교수, 이팔호 전 경찰청장, 오종렬 계승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이화 역사학자, 임현영 역사문제연구소장,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등이다.

☞ 양심수후원회 사무실에서 '후원회소식' 177호 발송작업을 회원들과 함께하다. 문상봉, 조순덕, 박경순, 나순석, 나민지, 모성룡, 김환진, 권오현 함께하다.

☞ 출소 비전향장기수 신현철 선생님께서 노환으로 일산 백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한찬욱 운영위원과 김수용 선생님께서 문병을 다녀오셨습니다.

☞ 이북의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은 대한적십자사 한완상 총재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어 8.15를 계기로 특별화상상봉과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의사를 통보해 오다. 전통문에서는 "귀측은 제19차 북남상급회담에서 동포애와 인도주의로 오는 추석을 계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금강산 직접상봉과 화상상봉을 실현함에 대한 우리의 성의 있는 제안을 외면하고 토의조차 회피하였다.”라며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인도주의적 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쌀과 비료제공까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이것은 최근 우리를 적대시 하면서 반공화국 제재소등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는 미국·일본에 동족 사이의 인도주의적 문제까지 불순한 목적에서 악용하여 외세에 팔아먹는 조건에서 남북 사이에는 인도적 문제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다.

☞ 포항 5호광장 4거리에서 민주노총 영남지역 5개지역본부 공동으로 '건설노동자투쟁승리와 경찰폭력규탄 민주노총 영남노동자대회'를 열다. 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 포항 포스코 농성장에 있는 이지경 건설노조 위원장과의 전화인터뷰 가족대책위 관계자 등 결의발언이 있었음. 노동자대회가 끝나고 농성노동자가족들이 남편들 면회를 가려했으나 경찰의 폭력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경찰은 임신부를 집단 폭행 하기도 하다. 한편 건설노조 하중근 씨는 뇌사상태라고 전해져 참가자들 격분케 하다.

☞ 이북은 명승지 종합개발회사인 현대아산 앞으로 팩스를 보내 금강산 면회소 건설중단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일부터 금강산 면회소 건설을 중단하고 21일까지 건설인원을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2.0

☞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62회 목요일집회가 열림. 이영 상임의장의 여는말, 권오현 공동대표의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발언, 임경욱 남(삼성일반노조)의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 낭독, 임기란 전 상임의장의 노동자들의 현실과 노동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발언 등이 진행되었음.

☞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강민조, 권오현, 정종렬 상임공동대표와 이병주 집행위원장 등은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하경락 위원장을 면담하고 민주공원건설사업과 관련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하다.

☞ 국제적십자자연맹의 북 수해현황보고에 따르면 평안남도 신양, 양덕, 성천군에 16일 6시간 동안 280~3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가옥 1만 1,524채가 파괴됐고 9,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는 185mm의 비가 내려 해주시 영양협동농장의 논이 물에 잠겼으며, 사망·실종자도 남측 49명의 2배가 넘는 100여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해짐. 이에 남측에서는 대북지원 시민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북측 수해현황 파악에 나서 실무진 6명을 평양으로 파견,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지원 물자의 종류와 양을 결정할 계획이라 밝힘.

☞ 후원회 소식' 177호 국내, 국외 등 1147 부를 발송하다.

2.1

☞ 매항리 주민대책위 전만규 위원장을 비롯해 환경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이 '치유되지 않고 반환된' 매항리 사격장, '농섬'의 현장을 공개하며 '원상복구 후 반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폐쇄 이후 셋덩어리 하나 치워진 것 없다. 그런데 환경치유가 끝났다고 반환을 한다고 한다. 양측 간의 합의사항이라느니 협상전략이니 하면서 벌인 비밀협상의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인가"라고 개탄하며 '감사실시 및 협상관계자문책' '방위비 분담에서 환경처리비용 공제' '국회는 미군기지 환경치유 관련 예산편성 거부할 것'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개정' '협상내용 공개 및 오염치유과정에 국민 참여 보장' '오염치유기간 동안 농어민들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함.

☞ 기독교교회 2층 강당에서 강정구 교수의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출판 기념회가 열리다. 각계 인사 4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한성대, 김귀옥 교수 사회로 홍근수 목사의 초청인 대표 인사말, 이계환 통일뉴스대표의 출판주최축 인사말, 홍윤기 동국대 교수의 책 소개말이 있었고 박순경 통일연대 고문, 홍창의 향린교회 설립 장로,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김태준 동국대 명예교수, 김세균 민교협 상임대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대표, 림철 일본 쓰다꾸주대 교수, 류민지 동국대 학생대표, 조현정 향린교회 담임목사 등 축하말씀과 강만길 교수의 기념사 등이 있었음. 이어 영상상영, 향린교회 교우들의 축하공연, 강정구 교수의 인사말, 축하떡 자르기, 기념촬영 등이 있었음.

☞ 이북은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회 사무소 일부 인원의 철수를 통보해 왔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그러나 남측기업과의 사업을 총괄하는 민족경제 협력연합회(민경련)에서 파견된 인원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남측기업과의 사업협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하다.

☞ 지난 13일부터 포항 포스코 본사를 접거농성하고 있던 포항건설노조원들이 자진해산하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자진해산하는 이지경 위원장과 민주노총 경북지역 본부장 등 128명을 강제연행하다.

2.2

☞ 평택역 광장에서 '평택범대위' 주최로 2,500여 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강제철거 저지! 미군기지확장 전면 재협상! 전쟁기지 강요 미군규탄!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4차 범국민대회'가 열림. 민중연대 전광훈 상임대표의 대회사, 평택범대위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의 규탄발언 등으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의 당위성과 군·경을 동원한 강제집행의 폭력성과 부당성을 주장하며 정부를 규탄하였고 도두2리 이상열 이장이 참가 대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계속 함께 해줄 것을 부탁하는 발언을 진행하다. 평택민중연대 채한석 대표가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20일, 주택 강제철거와 명도소송 계획을 다음 주 초 공식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라고 전하며 "우리

는 빈집 강제 철거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김으로써 투쟁을 와해시키려는 정부의 잔인하고 야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히며 4차범국민대회를 마치고 대추리 행진을 시작하였으나 경찰의 봉쇄로 인하여 평택 38번 국도 '안중리 신공리간 다리'에서 규탄결의 대회를 진행하고 6시 10분경 해산함.

2 4 -----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통일부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미국의 대북압박에 동참하는 노무현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한상렬 상임대표의 여는 말, 한청 이승호 의장, 민주노총 천경호 통일위원장 등 규탄발언과 반미여성회미미혜 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계승연대 강민조, 권오현, 정종렬 등 삼입공동대표와 박영희 사무처장, 김광철 팀장 등은 국회의원회관으로 열린우리당 행사위원 문병호 의원을 방문 면담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법을 반드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다.

☞ 세계식량계획(WFP)이 '긴급보고 29호'를 통해 "이북의 전역에서 큰 비로 10만 톤의 식량피해를 입었다."고 21일자로 발했다는 소식을 언론들이 보도하다. 이는 WFP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8개 기구 합동조사단이 평남성천군을 방문 조사한 결과 북북지역에서 농경지 3만ha가 물에 잠기거나 유실된 것으로 파악하여 산출된 피해량이다.

☞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국민들을 기만해온 매국노 김현중 통상본부장과 김중훈 수석대표의 즉각 해임을 요구한다."라고 밝힘. 노무현 대통령 이 한미FTA협상의 4대 선결조건(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중단, 광우철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기준 완화를 인정하는 발언을 함에 따라, 한미FTA 반대측이 그동안 이를 부인해온 김현중 통상본부장과 김중훈 협상단수석대표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임.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지금중 문화예술공대위 집행위원장, 전성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처장, 최인순 보건의료공대위 공동대표 등의 규탄발언이 있었고 범국민 오종렬 공동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4대 선결과제를 미국에 넘기고 이제는 한미FTA 협상으로 나라 경제를 다님기려고 하는 현정부에 대한 각계각층 국민들의 분노는 높이고 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즉시 한미FTA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2년전 탄핵반대 투쟁에 나섰던 바로 그 대오가 그 자신에 대한 반대투쟁에 나서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해임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마침.

2 5 -----

☞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기획예산처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문규현·홍근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59차 평화군축집회를 열고 '주한미군 관련비용 반영 국방예산 삭감', '작전권 환수 없는 전력증강 반대', '사회복지 예산 확충

을 요구함.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홍근수)'이 31일까지 계속되는 '전국 미군기지 탐방'을 시작하다.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탐방단은 이날 서울을 떠나 파주 무건리 종합훈련장-영월 필승사격장-대구/왜관-부산3함대사/진해-광양-군산-웅천/대천미사일기지-오산공군기지-평택 대추리까지 6박 7일간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각 지역의 미군기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것이며 각 지역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비롯해 미군기지 답사, 소지천 걸기, 기자회견등의 항의행동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주최로 '진실·화해 위원회 <시행령>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다. 권오현 삼입공동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박석은 집행위원장 사회로 김희수 전북대 법대 교수의 발제와 김성주 진실화해위 법무사팀장, 안승대 행정자치부공무원, 이춘열 민간인학살 범국민위 사무처장, 김명은 추모연대 집행위원장 등 토론에 나서다.

☞ 지난 23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의해 일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포항건설노조 이지경 위원장 등 5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영장실질심사 재판부는 58명 전원에게 영장을 발부하다. 또한 포항지청은 21일 새벽 연행과 노조원 79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포항건설노조 부위원장 지아무개 씨 등 4명을 수배하다.

☞ 한미FTA농축수산물비대위 원정시위대 15명이 24일 스위스 제네바로 출발함. 농축수산물비대위는 "WTO 다자간 협의가 어려움에 봉착하자 FTA를 통해 WTO를 능가하는 무차별적 개방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에 농대위 소속 농민들은 WTO의 승리를 끊고 FTA의 폭력성을 전 세계에 고발하고 저지시키고자 투쟁에 나섰다."라고 천명함. 원정시위대는 현지시각 25일 제네바 입국 기자회견을 가진 뒤 본격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며 26일에는 WTO 반대 한국투쟁단 결의대회와 공개 콘서트, 27일 공동기자회견 및 WTO 정부대표단 면담, 비아캄페시나 행진 등의 일정을 수행한 후 30일 제네바를 떠나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해움.

2 7 -----

☞ 통일연대는 7.27정전협정 체결 53주년을 맞아 27일 오전 11시 미 대사관 부근 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27부터 광복의 8.15까지 집중실천기간으로 삼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의 실천을 일관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대북적대정책 폐기', '한미FTA저지',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실천 활동에 들어감.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의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회장,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승호 한청 의장 등의 발언이 진행되었고 한총련 황유석 조동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참가자들은 철조망을 자르는 상징의식을 벌인 뒤 기자회견을 마무리함.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주한미군 캠프캐를 지지 정문 앞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미군기지 탐방단'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캠프 캐롤 병참기지강화를 반대한다.'라며 기지 축소 및 반환을 촉구함. 오해란 탐방단장과 유영빈 범민련 남측본부 대외협력부장이 '전략적 유연성'과 '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부당성에 대한 발언을 진행하며 "주한미군의 대대적인 감축이 논의되는 조건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군수지원의 역할을 담당할 캠프 캐롤의 역할 및 규모가 그에 걸맞게 축소되고 반환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함.

정전협정53년째를 맞아 2006.7.27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조직위원회는 강화도 외포리와 교동도 등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7.27 한강하구 평화의배 띄우기' 행사를 진행함. 작년보다 많은 단체에다 총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 올해 행사에서는 북녘 땅이 넓게 조망되는 어로한계선 인근에 정박,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갈매배 띄우기'를 비롯한 상징 의식과 문화제를 진행하였음.

답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626회 목요일집회가 열림. 임기란 전 상임의장의 여는말, 이주희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의 이미 조사를 받은 사건을 국가보안법으로 재기소한 검찰을 규탄하는 발언, 권오현 공동대표의 한청 항소심재판 등 국가보안법관련 사건을 계속 만들어내는 검찰을 규탄하는 발언 등이 진행되었음.

2 8 -----

국방부 정문 앞에서 '평택범대위' 주최로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 가옥에 대한 국방부의 강제철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음. 오두희 평화비람 활동가 등 강제철거규탄발언이 있었고 이상열 평택 도두리 이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만약 정부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의 길을 외면하고 주택 강제철거 등 기지확장사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 이에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히고 "우선 대추리, 도두2리에서 정부의 강제철거를 저지하는 싸움을 주민들과 함께 완강히 전개할 것이다."라고 경고함. 평택의 현재상황은 정부가 28일 평택미군기지 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98가옥에 대한 명도소송 및 주택인도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역에서의 '불법영농' 고발과 빈집에 대한 철거 작업, 이전까지 내 공사용 도로개설을 병행하기로 하며 사실상 강제철거 방침을 밝힘으로써 대추리와 도두리의 주민들은 '이제 올 것이 왔다.'라며 긴장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킴이' 들을 공개 모집해 빈집을 수리하고 거주시킨다는 계획임.

평화통일 시민연대 등 49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쌀, 비료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하다. 또한 교류중단과 대북 제재를 주장하며 위기를 부추기는 세력을 규탄하고 정부당국에 대해서는 미·일의 대북제재에 휘둘리지 말고 화해협력정책을 내외에 천명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하다. 개성공업지구 관리를 담당하는 이북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주동찬 총국장은 지도총국 개성사무소에서 열린 2/4반기 정기회의에서 "개성

공업지구는 앞으로도 계속 밀고나가야 하며 국제정세에 영향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다.

강태운 민주노동당 고문 등 양심수 68명에게 영치금과 민족21을 발송하다.

2 9 -----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통일연대, 전국민중연대 주최 서울통일연대, 서울민중연대 주관으로 제3차 '반미반전 월례공동행동집회'를 열다. 강용준 서울통일연대 집행위원장 사회로 이종린 범남본 명예의장, 고종환 민주노동당 서울본부장, 서충현 김하얀 의장, 다함께의김광일 운영위원 등 결의발언과 서충현 울릉패의 몸짓공연, 민주노동당 이수경 서울시의원의 결의문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다.

3 0 -----

양심수후원회 7월 산행의 날-도봉산 입구 안내판 아래에서 모여 우이암으로 가는 능선을 따라 산에 오르다. 도봉사 등 사찰과 휴식처를 지나 우이봉의 중간쯤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함께한 분들 소개시간과 최근 정세에 대한 토론을 하다. 이어 일부는 우이봉 아래까지 산행을 더 하고 다시 내려와 남아있던 분들과 합류, 도봉동으로 내려와 시원한 막걸리로 뒷풀이를 하다. 변숙현, 김선분, 송세영, 김영성, 김재선, 김백현, 신현익, 탁무권, 박철민, 이병건, 나순석, 나민정, 나민지, 조현정, 이용준, 권오현 등 함께하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남측위원회에 북녘지역의 큰 폭우 피해가 있어 이를 복구하는데 시일이 걸리게 되어 올해에는 부득이 '아리랑' 공연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통보해 오다.

3 1 -----

평화통일론 등을 주장하다 이승만 독재정권에 의해 사법살인 당한 죽산 조봉암 당수 47주기를 맞아 망우리 묘지공원 고인의 묘소에서 '죽산 조봉암 선생 명예회복 범국민 추진위원회' 주최로 고인의 따님 조정호씨 등 유족과 각계인사 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47주기 추모식이 열리다. 추모목념에 이어 김자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회장, 권오현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등의 추모사가 있었고 유족대표로 조수종 씨의 인사말, 유족들과 참가자들의분향화로 모두 마치다. 한편 죽산 조봉암 선생 유족과 죽산 조봉암 선생 명예회복 범국민 추진위원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조봉암 선생과 진보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한 바 있음.